



함께 떠나는 글 여행

여 젠가 기억에서

2009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문예지

2009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문예지

함께 떠나는 그 여행
언젠가 기억에서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인 우명현

발행처 지식정보센터

감 수 김원기, 유정숙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24번길 52(신곡동 124-1)

전 화 031 • 828 • 8670

팩 스 031 • 828 • 4959

www.uilib.net

어 함께 떠나는 그 여행
젠가
기억에서

[발간사]

2010년,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이 시점에
우리 지식정보센터의 문예지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예지 「언젠가 기억에서…」는
시, 수필, 기행문 등 많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함께 나누시길 바라며
이 문예지가 읽히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발간에 도움을 주신
일반시민, 학생, 의정부시 여성기예경진대회 수상자들,
도서관식구, 과학교사독서모임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서관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저는 문예지 발간과 함께
도서관과 시민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며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센터 소장 우명현



일반인 작품

시

연필 심(心) • 임보은	10
꽃 • 이 한	11
위낭소리 1 • 고두환	12
무제 • 김영주	14
열린 음악회 2 - Live Club • 이정우	15
우울증 • 심유진(미카엘라)	16
나무 • 전옥경	17
미아 • 정동희	18
나목 • 박태진	19
동해바다 • 신미숙	20
풀잎 가을왕이 • 김현수	21
나비, 부활을 꿈꾸다 • 장영신	22
자전거 • 구나경	23
산 • 송정숙	24
꽃씨 • 이순애	25
미련 • 최정희	26
두물머리 • 신동현	27
한 여름날의 느티나무 • 김경숙	28
포도 • 이도경	29

수필

종지 아니한 家 • 윤지혜	32
그리운 고향 • 이해란	38
아빠와 홍시 • 문효림	41
내 유년의 윗목 • 명철식	45
여름 • 송태일	48
꿈속의 전원생활 • 전홍익	51
삼월에 내리는 눈 • 오향숙	55
복숭아 • 김영애	58

감상문

'관용'을 읽고 • 옥고은	64
'6도의 악몽'을 읽고 • 이태용	68
'길버트 그레이프'를 읽고 • 이태용	77
'호모 사피엔스, 퀴즈를 풀다'를 읽고 • 이태용	81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 전홍익	87
불황 속에 살기 위해서... • 파피용	90
조지프의 '마당' • 글쓴이 없음	94
탐욕의 시대 • 김영애	97
피아노 치는 여자 • 김영애	99

2009년 의정부시 여성기에경진대회 수상작품

학생 작품

시

푸른 바다 · 엄민지	104
시험 걱정 · 정은비	105
고마운 마음은... · 김윤재	106
우리 동생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 박효정	107
손 씻기 · 이지오	108
새싹 · 유승원	109
병 · 최영두	110
부채 · 박영채	111
소중한 친구 · 이지현	112
우리집 흰둥이 · 김동연	113
내동생과 날씨의 대화 · 오지승	114
샤워한 낙엽 · 이지은	115

산문

환경 보고서 '공기' · 김맹수	118
응급실 · 박다예	121
똑똑한 아이 · 정재원	127
신나는 여행 · 임태희	129

옛 그리움 · 김순희	134
그리움 · 민경숙	135
그리움 · 이복순	136
종점 · 이부영	137
권 양반 · 김창숙	139
어머님 인생의 종점 · 노은정	142
모정 · 기타다 모모꼬	144
엄마 소망 · 쿠엔티 킴 티엔	146
그리움 · 사사끼 에이코	148

도서관식구 작품

『1940년 열두 살 동규』 · 최인환	152
푸른 바다속 세계 · 구광희	155
혼자 떠난 제주에서의 1박 2일 · 정 은	157
어른이 돼서 다시 읽은 '시몬의 야생동물 이야기' · 조희경	163
여행의 의미 · 김윤선	166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 영국 · 이성욱	169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 장민영	178
'경청'이란 무엇일까? · 김승지	181
교회의 적, 과학의 순교자 갈릴레오 · 과학교사독서모임	187
종의 기원 · 과학교사독서모임	190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교양이 '듀이' · 이인혜	192
활자 중독자 1인의 회상 · 이혜정	195
하성란의 『삿뽀로 여인숙』을 읽고 · 임애리	198
사서 인턴 후기 · 박혜선	201
나만의 독서노트를 채우자 · 이영미	204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 진선미	207
사서 후기 · 이나영	212

언젠가

기억에서

연필 심(心) ● 임보은

꽃 ● 이 한

위낭소리 1 ● 고두환

무제 ● 김영주

열린 음악회 2 - Live Club - ● 이정우

우울증 ● 심유진(미카엘라)

나무 ● 전옥경

미아 ● 정동희

나목 ● 박태진

동해바다 ● 신미숙

풀잎 가을왕이 ● 김현수

나비, 부활을 꿈꾸다 ● 장영신

자전거 ● 구나경

산 ● 송정숙

꽃씨 ● 이순애

미련 ● 최정희

두물머리 ● 신동현

한 여름날의 느티나무 ● 김경숙

포도 ● 이도경



일반인 작품

시

연표¹를 심¹(心)

임보은

사악 거리는 소리에
그는 제 몸의 살을 털어낸다.

은밀하게 불어 댄 바람이
낙엽을 떨쳐내 듯

그도, 하얀 종이 위에
누우런 그 짓을 가버이 내려놓는다.

날카롭게 다듬어 놓은
은빛 면도칼이

가냘픈 그 몸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면,

어둠 속에 그을려진
슬픈 마음은

제 살점 위에
검은 눈물로 토해낸다.

꽃

미 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는 힘 없는 꽃이에요.
화려하며 아름답지만 거친 손길이 닿으면
그냥 쓰러지는 꽃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정말 예쁘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 보여주죠.
하지만 날 항상 꺾어요. 아야~ 아야~
나는 나는 너무 너무 아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움을 주지요.
사랑을 배달하지요.

우낭소리 1

고두환

동이 트기 전부터
끓인 소죽

할아버지는 소죽을
여물박으로 퍼내
남은 외양간 늪은 소에게 가져간다.

낭패일세
아이고, 낭패다,
소가 늪어 낭패다.

사십 평생
할아버지 농기구와 자가용이
되어준 소가 늪어
낭패일세

오늘도 늙은 소는
달구지에 할아버지 태우고
들로 나간다.

소꼴에 해가 될까봐
논밭에 농약을 치지 않는
최 고집 노인

농사 힘들다
한숨 쉬는
할머니

무제

김영주

처마 끝에서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서
담장 옆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수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름비처럼 요란하지 않은
오월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안개비가
숨구름처럼 흰 수국 잎마다
진주를 달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내 어머니께서는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 주셨지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눈의 여왕,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오늘 난 내 아이에게
내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습니다.

열린 음악회 2 - Live Club -

이장우

카페리 Cafi 네 병이
나란히 한 줄로 반 토막 났을 때
동행인 각자 서로의 話頭에
들러싸여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물안개처럼
서로의 생각 속을 헤집고
혼돈의 벼랑 끝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샐러리맨의 추태' 라고
말하곤 하지요.
여전히 싱어는
제 목소리를 악기에 힘을 실어
봄의 향기를 뿜냅니다.

향기 타인지
테이블이 서 너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디서도
담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2009. 3. 11. 편)

우울증

심유진(미카엘라)

난 우울하다.
난 마음의 감기를 갖고 있다.
난 오늘도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치유한다.

뉴스에 보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다.
우울증 걸린 사람을 보면
삶이 무기력한 반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이 나악한 존재인가 보다.
우울한 사람은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한다.

난 지독한 감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새처럼 훨훨 털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안좋은 추억들을 훨훨 새처럼 털어버리고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어진다.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저승사자와 같다.
우울증은 정말 걸리면 안되는 병,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존재인가 보다.

나무

전옥경

봄바람 토닥임
햇살의 음계

은비늘 물결의
맑고 고운 메조소프라노

완성의 기쁨 갈망하는 자
목축이시라
말짭개 씻은 얼굴 세상 숲의 꽃이다.

웅골진 의지로
어둠을 밀어내고
당당히
초록생명 연주하는
너는,
사랑의 오케스트라

리아

정동희

흑독한
거울 새벽
빨간장갑 한 짝이 울고 있다.

예쁘게
아주 예쁘게
떨고있는 빨간장갑 한 짝

거두어주세요.
안아주세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쓰레기가 되긴 싫어요.

용기있는 누군가
빨간장갑 한 짝을 거두어간다.

빨간장갑 한 짝은 알았다.

세상엔
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¹²목

박태진

사람들은 모르지
소리없는 소리로
낮 밤 가리지 않고
자빔이 초록 생명 이야기 꽃을 피운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
산고대의 절정은
오롯이 바람과 마주하여
긴 시간을
빈가지로
온종일 울고 있을 때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
눈꽃송이 빠듯이 내려앉아
내 몸 감싸 덮을 때가
내 생
가장
따스함을 느끼고 있을 때라는 것을……

동해바다

신미숙

전날밤

마음하나 싸들고 열차에 올라
뒷모습 보아줄 한사람의 염려를
몸짓으로 감행한다.

눈한번 감아볼 수 없었던 설레임
익숙했던 하늘을 등지고
그리움 다가와 사라지는 파도의 습성
심장 한곳에서 뛰고있는 나의 어머니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바다와 구름을 마주하며
조용히 항해하는 하얀 돛단배의
수채화 같은 그리움

이 길을 접고
조심조심 새길을 연다.
희망이라는 깃발을
등마루에 꽂으며

풀잎 가을같이

김현수

늘 이맘때면
마음이 커버린 자리에
아픔이 손님으로 문을 두드린다.

뜰방에 하늘거리는
빨강 코스모스
고향냄새 닮은
들판의 바람
문자로 날려 보낸다.

나의 꿈꾸는 소녀
이젠
더 이상 두려워 마시고
가을,
아름다운 가을음계로
풀잎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비, 부활을 꿈꾸다

장영신

순결한 정
버선코 닮았다.

사색의 감성
부활하고 싶다.

걸어온 생의 가시밭길
정지된 난공불락
오르고 싶다.

기다려 주지 않던
때장의 질곡

길게 슬프고
잠시 기뻐다.

정녕 부활하고 싶다.
시의 나비

반백의 주름뿐인 소녀
나비, 막 부활했어

자전거

구나경

지긋대 등지고 굴러가는 두 바퀴
아득한 추억속에 이십년 세월

앞바퀴 민지 태우고
뒷바퀴 은지 태우고
쌍둥이 잠재웠던 정감어린 자전거

얼마나 달렸나
아빠등에 땀냄새 물씬난다.
힘들었을텐데, 아무 말 없네

자전거 바퀴 굴러가네
한 바퀴 더 돌고 돌 때

앞으로만 구르는 소리
저리도 아름다운 소리

산

송정숙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산
푸른 초대장을 보내왔다.

하루의 향연을 준비하는 소리 분주하다.
마음으로 길을 내어 이미 산을 오르고 있다.

앞 서는자,
뒤 가는자 길을 내고

무엇을
왜
어떻게
삶의 물음표는 또 길을 내고

산이 주는 초대 선물
듬적하면서도.
새털같은 이, 가벼움

나도 저렇게
누군가의 산이 되고싶다.

꽃씨

이순애

봄날

살포시 날아든 꿈빛 한 알
조그맣고 까맣고 예쁘고 단단하고 귀여운 꽃씨
요작은 꽃씨속에
만산홍 붉은 정열이 가뭇거린다.

꿈지락 꿈지락

은백의 튀는 유탄에 못 견디겠다는 듯
빗발치는 아우성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꿈틀대며 생동하며 도약을 꿈꾸며
투명한 갈빛아래 영글던 꿈
조그만 꽃씨속에 들어앉은
연분홍 초록꿈속에
봄햇발 된다.

미련

최정희

생각으로
말로
상처를 주어버렸다.

힘겨웁게 줄다리기 하던
사랑도 못내 아쉽다.

아픈 삶 속에
저리고도 시렸던 사랑

이젠 미움조차 없는데
내 마음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사람 내게 없는데...

오늘도
까만, 명울속엔
천년의 강물만 흐른다.

두 물머리

신동현

양수리 두물머리
아침해 떠오를 때
산능성이 붉게 물들어 오고
살얼음 얇게 흐르는 검푸른 강에
물살을 가르는 오리떼

경건히
해가 떠오르고
순간,
친구도 애인도 낯선이도
하나의 검은 실루엣이 된다.

산, 강, 사람, 오리
햇살 속에 하나로 어우러진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두물머리 언덕의 고목

남, 북의 두 물이 만나고
너와 내가 하나되어 흐르는 곳
우리 역사의 새 아침

한 여름날의 느티나무

김결숙

가만히
조용히
아부지...
괜한 눈에 구부정한 모습으로 서 계신다.

척추와 위를 절제하시고
보건소를 집삼아
한 응큼의 약을 보약처럼 드셨다.

평생
분재와 난을 자식처럼 기르고
긴 회초리들고
찌렁찌렁 교단을 올리셨던 수탉선생님

자식들 부담될까봐
보고싶단,
아프시단 말도
속으로만 삼키시고
전화 한통화에 행복을 올린하신 올 아부지

눈의 초점을 흐려버린 뿌연 안개가
이밤 내 목을 누른다.

포도

이도경

강물이 휘어도는
서라우 포도밭
소소리 바람에 옷을 벗는다.

벗겨진 하얀속살
그 틈새로
환하게 웃어주던 어머니

알알이
무거워지는 초록 젓가슴
숨막히게 영글어가는
뜨거운 모성

농익은 가을날
생명의 진주로
다시 태어난다.

언젠가

기억에서

좋지 아니한 家 ● 윤지혜

그리운 고향 ● 이해란

아빠와 흥시 ● 문효림

내 유년의 윗목 ● 명철식

여름 ● 송태일

꿈속의 전원생활 ● 전홍익

삼월에 내리는 눈 ● 오향숙

복숭아 ● 김영애



일반인 작품

수필

줄지 아니한 家

윤 지 혜

부모님의 회유와 협박

명절이나 대대적인 가족모임을 앞둔 날이면 숙제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 마냥 가슴이 답답~해온다. 특히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답답함이 배가 된다.

친구들 역시 나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 중 과격한 친구 하나는, '천산 길고 하우스 도박이라도 한 판 해야 이런 고민 없어질 것'이라 외치기도 했다. 살다 보면,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믿을 것은 가족뿐이라 빠져리게 느낄 때가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가족이라 생각할 때도 있다.

부모님은 한 달 전부터 나를 쪼아(?) 오고 계셨다. 지난 주말 있었던 할아버지 팔순 기념 가족 여행에 절대 빠지면 안된다는 회유와 협박이 그 것이었다. 늘 그런 대대적인 가족모임을 불편해하는 내가 이번에도 이런 저런 핑계

를 대고 빠져나갈 것이라 생각한 부모님은 미리 선수를 치셨다.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 시켜 놓고 반론의 여지를 묶어버리셨던 것이다.

고 3인 사촌 동생도 오고, 임용고시 4수생인 동갑내기 사촌 언니도 온다는 데 도대체 내가 바쁜 일이 뭐냐는 부모님의 강한 압박에 7살 이후로 이번처럼 순순히 어딜 따라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과연 못된 인간일까?

부산, 대구, 인천 등 각지에서 몰려든 아빠의 다섯 남매를 비롯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평으로 모였다. 모이고 보니 총 22명. 이만하면 ‘가족’이 아니라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는 훌쩍 넘지 않을까? 말이 가족이지, 고모들은 5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내 가슴에도 오지 않던 사촌 동생은 나 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서 나타났다. 애써 환하게 웃으며 쫓아가 반갑다고 인사했지만, 속으론 이 단체 기합이 언제 끝나나 그 생각뿐이었다.

어쩌다 난 가장 가깝고 살가워야 할 가족들의 모임을 이렇게 불편해하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라면 애뜻하기만 할까? 나는 과연, 못되고 덜된 사람일까?

그 불행의 중심엔, 내가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어느 집이나 비슷하다. 형제간 재산 이야기나 자식들 공부 내지 출세, 혹은 결혼 등이 그것일 것이다. 더군다나 동갑인 식구가 있는 경우엔 그 피곤함은 배가 된다.

그 불행의 중심엔 늘 내가 있었다. 외가 친가 모두에 동갑내기 사촌이 있었고, 불행히도 난 생일까지 느렸다!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라고, 오빠라고 불려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그치지 않고, 내 성장은 늘 그들과 실시간 비

교가 되고 말았다.

가족끼리 모이는 날이면 가족들은 그들이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식구라는 것을 망각한 듯 남보다 더 치열하고 치사하게 서로를 비교해가며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것이 있으면 대단한 승리라도 거머쥔 것처럼 우쭐해서 돌아가곤 했다. 이번 여행은 자주 볼 수 없었던 고모들까지 모이게 생겼으니 내가 지레 뒷걸음 치는 것은 당연했다.

불편한 시작

이 모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엄마는 대화에 곁들거나 입바른 소리를 해대면 가만 두지 않겠노라 선언을 하곤 했다. 집에 돌아와 밥 얻어먹고 살려면 별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해 방싹거릴 수밖에. 사촌언니와는 언니라 부르기가 싫어 처음엔 호칭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 했는데 얼굴 볼 기회가 적어지면서 점점 말 붙이기가 서먹해진 사이가 되었다.

여행 이후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 언니에게 가서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는 양 넉살 좋게 말도 붙이고, 고모와 결혼하신 지 15년이 넘으셨지만 나는 겨우 세 번째 보는 고모부의 팔짱을 끼고, 세 마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꼭 상처 주는 말을 하시는 큰엄마와 소주를 나눠 마셨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작정하고 봉사한다 생각을 하니 생각 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랬다. 어렵지 않았다.

모든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 보면 비극

고기를 구워 먹으며 왁자지껄한 가족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끄러운 소음들이 sound off 되고 인물 하나하나가 클로즈업이 되었다.

늘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신 첫째 큰 아빠 댁은 대신 딸이 고시공부에서 헤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고, 3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 둘째 큰아빠 댁은 대신 너무 자린고비시라 식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셋째인 우리 집은 마찬가지로 공무원 생활을 말 그대로 먹고 살만은 하나 가족 행사에 시큰둥해 곧잘 미움을 사고 있고, 큰 고모는 젊은 나이에 우체국장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아이들이 심할정도로 공부를 못하고 있다. 작은 고모는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나 고모부와의 사이가 좋지만은 않으시다.

식구들의 모임 이후엔 반드시 여진이 남는다.

“저 집 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썼네”

“저 집 애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넌 뭐니”

“저 집은 저렇게 식구들끼리 살가운데 우리는 뭐냐”

“누가 누가 이런 말을 했네”

등등 이번 모임 이후의 각 가정의 대화의 화두는 안 봐도 대략 레이어아웃이 그려진다.

우리 집 역시 우리 집엔 부족하나 다른 가족의 집엔 있는 그것들로 모임 이후의 여진을 자주 경험했었다. 누가 먼저 경쟁하자 말한 적 없지만 그렇게 편을 가르고 열심히 싸웠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가족에게나 들여다보면 아픈 구석은 있는 법이다. 우리 집 이외의 다른 집은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고, 고상하게 잘 사는 것 같은 열등감을 가졌던 적도 있었으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모두 그럴듯하게 흉내는 내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자 단체기합이라 여겼던 모임에서 웃는 것도, 어색했던 식구와 어울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좋지 아니한 家? 좋지 아니한가!

'家'에 살고 있지만 난 그 모순과 갈등까지 사랑한다. 그 모임의 본의를 잊으셨던지, 할아버지의 만수무강을 위해 시작한 바비큐파티는 '먹고 죽자'의 술파티로 변해있었고, 오기 싫다 내뱉던 나는 정신 차리고 보니 노래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가족과 가족이 모이는 경우, 가족 내부적으로 더 결속되게 마련이다. 남자 동기 녀석 하나는 오늘 아침까지도

"엄마~밥!"

"엄마~돈!"

하다가도 가족들이나 부모님 친구 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로 말이 나간다고 했다.

여느 때엔 가장 멀고 세상에 이런 적이 없을 것같던 원수였다가도, 밖에 나오면 자발적으로 '우리는 한 편'을 실천하고 있다. 서로의 맘을 누구 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해하고 다투아가기까지 하는 상황을 죽도록 못 견디 하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엔 너무 버거운 존재이다.

누구보다 이해가 되기에 더 괴로운, 그러면서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더 괴로워하는 가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한단 말인가? 나의 필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소재임에는 분명하다.

한 때 우리 집은 왜 드라마 속 고상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지 못하는가에 짜증이 났던 때가 있었다. 그 그림 같던 가정이 '좋은 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 '좋지 아니한' 모순과 갈등을 다 품지 못해 괴로웠을 뿐이다.

'가족' 간에 무슨 놈의 경쟁이나, 시기냐……. 경쟁한다 한들, 지면 또 어떤

가? 라는 착한 맘을 품고 집에 돌아와

"엄마, 나 이번엔 마음에 들었어?"

'이제 가족들을 밀어내지 않기로 했다' 는 내게 엄마는

"동갑 사촌 보다 똥똥하다."

며,

"그 집 딸은 몸이 종잇장이던데 넌 뭐냐?"

는 피드백이 돌아왔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다.

"도로 아미타불"

그리운 고향

이혜란

태어난 시간과 오랜 학창시절을

보낸 평택에 있는 친구들을 보러, 의정부에서 평택까지 간 적이 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친구 딸의 첫 생일을 축하해 주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데, 어느새 곧히 잠자고 있는 6살 딸. 어리게만 봤는데, 그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다. 피곤할 법도 한데 밝은 얼굴을 보니 저절로 힘이 났다. 원래 착한 딸인데, 예쁘게 잘 웃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어두운 밤이 되어 이불을 펴는데,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먼 곳에서 와줘서 너무 고맙고, 딸도 상당히 예쁘더라. 그 문자에 또 다시 행복해졌다.

지난 과거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듯이 내 학창시절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것이 하루를 즐겁게 하였다. 하루하루 친구와 학교생활이 없었던 지금 나는 누구와 관계하며 지내고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하면 확실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절에 교내 자작시 발표로 인해 천상병 시인처럼 시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글을 잘 쓰는 것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하지만, 장래 희망에 적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부모님이셨다.

교내 백일장이나 클럽활동에 문학연구반이 있으면 고민 없이 신청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국어 경시대회와 글짓기에 도전을 하였던 나, 그 당시에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현저히 적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서 학교대표로 갔던 거였다. 언젠가 또 다시 열리겠지. 어느새 6살 아기 엄마가 된 나, 지금의 모습에 더 감사하다. 내가 선택하여 글 쓰는 백일장에 갔던 내가 이제는 어디든지 딸과 함께이다.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닮은 딸, 책을 읽고 맘에 드는 구절을 쓰거나, 인상 깊은 그림을 그리는 딸을 보면 늘 즐거운 것 같다.

분홍, 노랑, 연두, 녹색, 하늘색으로 색칠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6살 아이의 그림이 맞나 하며 감탄을 할 때도 있다. 어쩌면 6살 꼬맹이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순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천상병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

의정부에서 처음 개최한 제 1회 충의문화제에서도 최연소 6살 이채우에 대해서 내게 들려준

“골든 벨 흰 칠판에 이채우 대통령 쓰는 아이, 제 2의 선덕여왕을 보는 것 같다.”

이 한 마디가 엄마로써 너무 감사하다. 백일장과 OX퀴즈, 골든벨과 충의 정문부 의병장군의 행사를 통해서 충의예술제로 그를 알고, 우리 숨겨진 역사를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뜻 깊은 첫 백일장 참가 후, 6살 딸이 또 다시 가고 싶다고 하여 천상병 예술제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벌써 6회째 열린 천상병 시인의 예술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 하고, 그의

유명한 시 '귀천' 처럼 세상의 고된 삶을, 즐거움으로 가득 찬 소풍처럼 가볍게 마치고 순수하게 웃으며 그의 시 '새' 처럼 저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 천상병, 아무 직업 없이 오직 글 쓰는 일로 이 땅에서 힘겹게 살면서 시인으로 살다가 갔지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 의해 사랑받는 천상병, 그 부인 묵순옥 여사가 부러워진다.

가난한 예술가의 흔적을 위해 딸과 참석한 예술제가 내 딸에게는 하루의 역사가 될 것이다. 시인을 기리는 축사, 언젠가는 채우 예술제로 축사를 받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미래의 꿈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딸이 있어서 든든하고, 더욱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백일장과 예술제와 각종 문예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책을 많이 읽고 쓰도록 해야겠다.

이번 천상병 예술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학창시절에 글을 썼던 것을 회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더욱 의정부시민 문예축제 한마당으로 서로서로의 자작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아빠와 홍시

문효림

10월의 끝자락이 되면 우리 집 베란다 선반 위에는 거울이 가지런히 놓여진다. 수줍은 듯 빨갛게 통통한 속살을 숨기우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듯 우리 가족에게 인사를 건넨다.

아빠는 그 투박한 손으로 행어나 모양이 흐트러질까 조심조심 어여쁜 홍시들을 어루만진다. 홍시를 유난히도 좋아하는 아빠는 그래서 거울이 되면 유독 소년의 웃음을 지었나보다.

겨우 세 식구뿐인 우리 가족은 매년 거울이 찾아오면 아직 익지도 않은 홍시들을 박스채로 사다놓고 하나 둘 예쁘게 익어가는 홍시들의 탄생을 기다린다. 철가루 듬뿍 머금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는 아빠는 탄생이 임박한 홍시들을 분류하고 나뭇의 순서대로 선반위에 하나씩 올려놓는다.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거실에 앉아 9시 뉴스를 보며 탄생 1순위의 홍시를 후루룩

드시는 아빠의 모습은 우리 가족 거울맞이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인지 아빠와 나는 유독 거울의 저녁 날에 홍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박스 밑쪽에 있는 홍시가 어느새 다 익어서 위쪽으로 옮겨 줘야 한다느니, 홍시가 어디에 좋다느니, 요놈은 참 색깔이 예쁘다느니 하는 부녀의 대화가 오간다.

아빠와 함께 홍시를 먹을 때면 흐물흐물 감당할 수 없는 홍시를 깔끔하게 먹지 못하는 나는 아빠의 타박을 받기 일쑤고 그 요령을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어렵다. 아빠께서 매일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하는 내 손이 왜 홍시 앞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매년 홍시와 함께하는 거울 날 가끔씩 눈으로 보아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새빨간 홍시를 발견할 때가 있다. 아빠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혼자 잘 익어갔는지 그 모습이 기특해 홍시를 조심히 감싸들고 행복한 표정을 금치 못하신다.

이런 예쁘고 기특한 홍시 앞에서는, 내가 아빠의 하나뿐인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언제나 내 것이 된다. 가끔은 꿈꿨던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모두가 잠든 조용한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선반위에 홍시여왕처럼 놓인 그것을 보며 나는 혼자 웃곤 한다. 마치 나의 어린 날, 크리스마스 저녁에 내 머리맡에 놓여있는 선물을 보며 기뻐했던 그때처럼, 산타할아버지를 지나 그것이 아빠였음을 깨달은 순간에 아빠가 너무나도 고마웠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렇게 커버린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저런 이유들로 아빠라는 그 단단하고 무딘 존재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아빠가 꺼내는 홍시이야기도 귀찮아지고, 나를 위해 준비해 둔 홍시여왕도 보기가 싫다. 이 내 풀릴 화를 아빠에게 잔뜩 내버린 나는 며칠 동안이나 외로이 나를 기다려 온 홍시를 새벽에 바라보며 아빠에게 했던 잘못을 홍시에게 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어둡고 추운 새벽 나를 기다려준 홍시를 보며 아빠에게 나뭇잎의 미안함을 전한 나는, 갑자기 허기진 배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맛있게 내 뱃속

으로 채워 넣는다. 아빠는 그렇게 선반위의 비워진 홍시 자리를 보며 나의 미안함을 읽어왔을 것이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홍시에 대한 애정을 거울의 낙으로 삼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다. 홍시를 보살피는 아빠의 모습은 꼭 내가 어릴 적 나를 안아주던 그 손과 똑같이 보인다. 그것을 어루만지고 따뜻해하는 모습 말이다.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 옛날 우리 세 식구가 단칸방에 살던 시절 아빠는 겨우 바나나를 사올 수 있었던 날에는 그것을 가장 먼저 나에게 주고 싶었다고 했다. 어쩌면 지금의 아빠는 이제 겨우 맛있는 홍시를 마음껏 먹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느새 엄마가 결혼하던 해의 나이와 같아질 만큼 컸고, 아빠보다 훨씬 더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날씨가 추워지는 깊은 겨울이 되면 우리 집 베란다에는 탄생의 순간을 기다리는 홍시 한 박스가 놓일 것이다. 처음에는 박스 안에 있는 모든 홍시가 천천히 익어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익어가는 홍시를 두고 홍시 쟁탈전을 벌일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를 제외한 아빠와 내가 홍시를 두고 묘한 기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아빠는 매일 저녁에나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동안은 학생인 내가 항상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아빠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와 겨우 익은 홍시 하나를 후딱 먹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빠는 다음은 내 차례라며 엄포를 놓기 일쑤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제 막 탄생한 하나의 홍시를 아빠를 위해 내가 먼저 선반위에 올려놓을 때도 분명 있기는 하다. 이제 부너지간의 홍시 소란은 우리 가족에게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 소란을 기다리며 즐길 것 같다.

홍시 하나에도 너무나 많은 추억과 재미와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아빠는 그

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남겨주고 계셨던 걸까? 겨우 '어른'이라는 나이가 되어버린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올해는 아빠와 홍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다. 홍시를 아끼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그 순수하고 진실 된 마음 안에서 이만큼 자라났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

내 유년의 뒷목

명철식 |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2월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시내에서 불일을 보고 중랑천 인도교를 건너오는데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께서 무를 놓고 팔고 계셨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찬바람이 휘휘 달려드는 다리 위에서 무 열 개쯤 놓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내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니 내가 네다섯 살 때였을 것이다. 요즘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 때 누나의 허벅지에 종기가 나서 굵아 들어가 부모님께서 몹시 걱정하셨다.

의료보험도 안 되던 그 시절, 병원 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약도 변변히 쓰지 못 하고 민간요법에 의존하던 때였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좋다는 민간요법만 써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낫지는 않고 점점 깊이 굵아 들어가니 부모님의 걱정은 깊어지고 집 안 가득 심란한 기운만 짙어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머니께서 쫘쫘 언 땅을 곡괭이로 파서 묻어두었던 무를 한 자루 캐서 이고 길을 나서셨다. 삼다리 장에 팔러 가신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내가 아는 삼다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차가 뿌우 기적을 울리고 칙칙 칙칙 달리는 소리만 들려주는, 그야말로 동편 언덕 너머 아득히 먼 미지의 세계였다.

찬바람 속에 무거운 짐을 이고 그 먼 길을 떠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심란한 하루를 보내야 했다. 겨울날의 저녁 해는 야속하게도 빨리 숨어버리고 무를 팔러 가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다. 밖이 캄캄해질수록 우리들의 불안과 걱정은 커져만 갔다.

시커먼 어둠이 세상을 덮고 우리의 불안이 점점 깊어갈 때, 드디어 어머니는 한겨울의 냉기에 싸여 돌아오셨다. 그러나 얼굴에는 땀이 식어 김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무가 한 자루 그대로 얹혀 있었다.

“무를 팔아 우리 영희 약 사주려고 했는디”

힘겹게 무를 내려놓으시며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무를 팔아 누나 약도 사고, 차비도 마련하여 버스 타고 오시려 했는데 한 개도 팔지 못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20kg이 넘는 짐을 이고 20리도 넘는 길을 걸어서 되돌아올 수밖에…….

언제부터인가 노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건 팔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주머니들의 눈빛을 대하게 되면, 그 추운 장터에서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딸내미 약 값 마련하려 이제나 팔리려나 저제나 팔리려나 마음 졸이셨을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 나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솟아올라 두 눈에 고인다.

그 날, 그 아주머니에게서 40여 년 전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 아주머니도 빨리 팔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하는 마음에 10개 정도 되는 무를 다 사줬다고 했다.

노점에서 하나씩 팔아서는 그날 다 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동정심에서만은 아니었다. 마침 무가 필요했던 참이기도 했다. 아주머니께 차를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10여분 후에 차를 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무가 한 자루 더 있지 않은가? 아저씨께 전화해서 한 자루 더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무를 한 자루 사긴 했다.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 앞엔 다시 한 자루가 놓여 있다. 그 아주머니는 또 그 무를 팔기 위해 찬바람 부는 다리 위에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괜히 나 혼자 김칫국 마신 것 같아 헛웃음만 웃고 돌아올 수밖에…….

여름
12

송태일

여름의 문전에서 열어놓은 창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슬 굴러가듯 맑은 벌레 울음소리를 나는 사랑합니다.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옥으로 빔어 놓은 구슬이 귓전에 스치며 지나가는듯한 그 음향에 나는 문득 넋을 잃고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 차있던 한나절이 지나면 하루의 고달픈 일과를 씻어 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음향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벌레 울음소리 그윽한 밤에 잠도 잊어가며 넘기는 책장소리를 나는 사랑합니다. 때로는 오묘한 진리를, 달콤한 물결을, 또는 지혜의 가교를 건너며 서서히 그리고 차곡차곡 나의 가슴을 살찌워가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찬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밤에는 졸음도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책 읽는 밤은 차가운 형광등보다는 따사롭고 포근한 백열등이 더욱 정겹습니다. 책갈피 속에는 신비로운 향기가 깃들어있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을 울리기도, 웃기기도, 흥분하게 하기도, 손에 땀을 쥐게 하기도 합니다.

황홀한 시의 물결을 타며 문득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옛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을 맞은 우리 민족은 민족의 향취를 듬뿍 안은 경복궁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우리 글을 창제하기 위해 자주 들러서 고심하고 많은 학자들과 강론하셨던 천주전 건학 때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글의 소중함과 함께 한층 더 애착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고운 글을 물려주신 선인들의 은혜에 좀 더 우리 글을 아름답게 갈고 닦음으로써 보답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무루 익는 가을한때 여로의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황금빛 물결을 나는 또한 사랑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출렁이는 알곡의 파도…….

저 풍성한 파도를 잉태하기위해 대지는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뺀아 들었을까? 또 저 알곡의 물결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감회, 그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출렁이는 황금빛 결실들을 바라보면 비록 낮 한번 잡아보지 못한 나도 어느새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되며, 내 마음은 농부의 마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절로 감사를 보냅니다.

파아란 하늘과 어우러져 우리의 강산을 곱게 수놓아 주는 붉은 단풍도 나는 사랑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라기엔 너무나도 곱고 예뻐서 물감이라도 찍어놓은 듯한 착각마저 느끼게 하는 단풍 앞에서 나는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국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마음씨 또한 그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돌이켜 생각하며 새삼 우리 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을 다시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꼬옥 잡고서 놓아주고 싶지 않은 아쉬운 가을도 다 지나가고 어느새 외투 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 앞에서 ‘바스스’ 쓸쓸한 소리를 내며 떠나는 가을

의 나그네 낙엽을 나는 사랑합니다. 자랑하던 푸르른 빛도 다 지나가고 이젠 건조하게 말라버린 잎새들에게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매달려 푸르름을 자랑하고는 영원한 길을 떠나는 낙엽에게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가면서 다음 봄에 찾아올 파릇파릇한 새순의 모습을 약속해주니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비록 낙심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언제나 파란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무지갯빛 사념에 잠기다 보면 어느새 커다란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을에 나는 간구합니다.

“주여 가을에는 풍성하게 하소서, 알곡이 풍성함이 농부의 생활을 보람되게 하고, 무르익는 과실들이 못사람들을 즐겁게 하듯이 사색의 풍성함이 매마른 가슴들을 살찌게 하소서.”

꿈속의 전원생활

전홍익

처음부터 난산이었다.

한 친구는 지리산 청학동에, 또 한 친구는 아이들이 있는 서울 근처인 경기도를 주장하였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는 전 국토가 일일 생활권인데 아무데면 어떠리였다.

몇 차례의 술자리 끝에 경기도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렇게 고등학교 4학년(재수생) 동기생 다섯 명은 희망에 부풀어 머릿속으로는 이미 전원생활을 시작하였다. 늙으면 잘 빠친다고 하여 편갈이 방지차원에서 인원수도 홀수로 정하였다. 식사만큼은 공동식당을 지어 같이 하자고도 하였다. 열 명이서 왁자지껄 식사하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돼지인들 못 키우랴? 개인별 나들이를 할 때도 친구들이 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을 비울 수 있다. 차는 봉고 1대와 지프차 한 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친구 다섯 명이 모여 사는 희망에 부푼 꿈에 입지를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마눌 녀들의 시선이 냉소적임을 감지하고는 있었다. 짐사람도 내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았으나

“잘 해보시오”

하는 냉담한 표정이었다. 가평, 청평, 여주, 용인, 용문산과 유명 산자락 등 심지어 남춘천까지 돌아다녔는데 가끔씩 따라다니던 아내들은 검은 발톱을 감춘 채 그 지방의 맛난 음식을 대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틈틈이 1년 가까이 돌아다니다 드디어 남양주시 수동면으로 정하고 구체적 인 매입 계획에 들어갔다. 막상 실행단계에 들어가니 소위 팔짱을 끼고 있던 모양새의 마눌님들, 드디어 포문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였던지라 곳곳이 건디어 내고들 있었으나 시골에 들어 가려면 이혼을 하자고 정색을 하는 마눌님이 나타났다. 결국은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갔다. 또 한 친구의 마눌님은 자기 언니가 있는 지리산 청학동 아니면 안되겠다는. 전원생활이 하기 싫은 핑계였음을 다들 감지하였다.

처음 한 친구가 떨어져 나갈 때 서로 말은 안 했으나 실패를 예견하고들 있었다. 하여 동대문의 광장시장에서 빈대떡과 막걸리로 쫄파티를 하고야 말았다. 처음 출발할 때의 기세등등하던 호기는 결국 뱀 꼬리가 되고 만 것이다. 나이가 먹어갈 수록 발언권이 세지는 무시무시한 마눌님들의 위력 앞에 우리 남편들은 초라하게 백기를 들고 말았다. 왜 마눌님들은 도시를 떠나기 싫어할까? 목적이 허공에서 분해되고 나니 그 허허로움이란…….

다섯 명중 세 명은 전원생활을 논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 친구는 과천의 청계산 밑에 텃밭을 구하여 배추다 오이다 상추다 고추다 등등 읊더니만 하루는 자기가 심은 상추와 깻잎 등으로 삼겹살 파티를 열어 우리들의 반분을 풀어 주었다.

전원생활의 부푼 꿈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나니 즐겁기만 하던 한 달에 한

두 번의 상경길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 맹한 여행길이 되어 버렸다.

결국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란 생각으로 마련한 보금자리, 의정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포는 집값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또한 공기도 안 좋고 갈만한 산도 여쭙잖고 답답하고 등등……, 지하철과 산을 염두에 두고 다니던 중 삼성산 밑자락의 안양과 도봉산 밑자락의 의정부 두 군데로 압축이 되었다.

안양은 아파트단지 뒤가 바로 산으로 이어져서 환상적이었다. 더구나 안양 역사안에 백화점이 있고 반대편으로는 변화가가 형성되어 있어 아내는 적어 좋아하는 눈치였다. 허나 지하철과의 거리가 차를 타기도 안타기도 어중간하였다. 또한 산업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대열은 가히 공포수준이었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여러 번을 다니며 고민한 끝에 의정부로 결정하였다.

지금 내가 사는 곳.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수락산 전체의 정경은 팍팍한 도심의 아파트가 아닌 마치 촉촉하고 포근하게 내리는 보슬비의 아스라한 정경과 같이 늘상 내 가슴을 적시 운다. 그 싱그러움이며! 비가 온 직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무사이로 드러나는 푸른 숲, 암벽, 산 정상 모습은 바로 선경 그 자체이다.

지난 추석에는 수락산 산마루에 올라앉은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온 식구가 다 좋아하였다. 거실 베란다에 조그만 탁자를 준비하여 아내와 와인 잔을 기울이는 그림을 그려보니 그 운치 또한 기대된다.

그 간 30년 이상을 주택에서만 살아온 나는 친구들의 아파트 집에 갈 때마다 거실 밖으로 보이는 앞 동의 칙칙한 시멘트 덩어리가 갑갑하고 음울하게 느껴져 싫었다.

수락산과 도봉산, 늘상 바라보이는 수락산은 아직까지 보는 즐거움 속에 머물고 있으나 매일 새벽 오르는 도봉산은 역동적인 산세가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이번 주에는 예상치 못 하였던 밤을 즐느라 본연의 등산이 방해를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도토리과 함께 여기 저기 널어놓은 고추의 강렬한 빨간 빛깔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한적하고도 따사로운 시골의 멋을 연상시킨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이는 중랑천. 낮에는 물론 자정이 넘은 한 밤중에도 카펫과 같은 붉은 색의 보도 위를 달리고 걷는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 총각, 그리고 아이들, 게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의 날렵한 달음질과 경쾌한 맵시의 자전거 행진, 이러한 사람들의 사는 소란스러움을 무시하는 듯 한가롭게만 느껴지는 중랑천 잉어들의 몸놀림, 물속에서의 힘찬 요동을 바라보는 내 눈과 마음은 즐겁기 그지없다.

한가로이 헤엄쳐 다니는 오리 떼들은 심심하면 한번 씩 물길을 차고 올라 하늘을 낮게 날다가 수면 위로 미끄럼을 타는데, 그 모습을 조금은 외로이 바라보는 왜가리조차 정겨워 보인다.

앞에는 수락산과 중랑천, 뒤에는 도봉산, 그러나 어찌 이뿐이라? 끝 간 데 없이 맑은 날 베란다에 나서면 남산타워, 관악산, 청계산, 용마산의 자태와 불암산의 봉우리가 나를 향하여 손짓을 한다.

비록 전원생활을 포기는 하였으나, 나를 둘러싼 정경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위안을 주며 이렇게나마 목가적인 생활을 조금 맛볼 수 있어 흐뭇하다. 아쉬움 속에 선택한 차선택이건만 나도 모르게 이미 전원 속에 들어와 있었다.

삼월에 내리는 눈

오형숙 | 책향

나흘만에 보는 아들 얼굴

이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단체 사진속에서 아들은 불편한 미소를 띠우며 서있다. 신병훈련소로 입소한 기념으로 벌써 사진이 올려졌다. 다른 아이들은 억지로라도 띄운 환한 미소였겠지만 아들의 표정은 몹시 난감해보인다.

회고 핏기없는 얼굴에 왠지 슬픔까지 느껴진다. 또 그 얼굴이 흠어져버린다. 나 역시 요즘 난감한 감정에 휩싸이며 주변 사물들을 자주 흐트러뜨린다. 눈물때문에…….

아들의 일만 아니었다면 오늘 내리는, 특히 지금 삼월에 내리는 눈은 충분히 낭만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꽃을 피우려고 부풀었던 꽃망을 위로 눈꽃이 피었다. 드디어 아들이 입대했다. 죽어도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했기에 '드디어'란 말을 꼭 넣어야 할 것 같다.

며칠 전엔 삼월이란 달에 알맞게, 아니 그보다 좀 더 따뜻하게 이상기운을

보이던 날씨가 오늘따라 바람도 불고 눈까지 흩날리고 있다. 아이의 짧은 머리가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다.

대학 2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낸 후 음악에 정신이 빠져 밤낮으로 기타를 매고 일년을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그야말로 작은 일이라도 속삭이는 일이 없었던 아이였기에 그가 주는 반항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더이상 엄마의 말이 전부가 아닌 나이가 되었기에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길게 보면 지금의 일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수도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아이를 이해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년의 시간들이 나에게서는 그저 무계획의 한심한 시간으로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잔소리를 했었다. 결국은 이렇게 입대할 시간이 오고야 마는 것을 마음줄이며 아이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해심 없는 엄마로 비취졌을 내가 미안했다.

입영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입소하는 아이들이 천칠백 명이라고 하니깐 한 사람에 두세 사람만 같이 왔어도 그 인원은 대단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짧게 자른 머리가 어색해 모자를 쓰고 있었고 대부분의 같이 있는 엄마들의 눈시울은 젖어있었다. 느닷없이 내린 눈과 찬 바람 때문에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더 쓸쓸해 보였다.

입소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들은 그만 돌아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어색하고 서글픈 이 순간이 아이에게겐 어찌지 못하는 상황처럼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공식적인 이별식을 진행하기도 전에 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인파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져갈 때, 입고있던 점퍼의 초록색 무늬가 약하게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뜨지 못하고 아들과는 인사를 나누었지만 따로 떨어져 입소식을 지켜보았다. 주변사람들이 울거나 혹은 웃거나 사진을 찍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입소하는 아이들은 모이지도 않은채 한사람 씩 멀리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 강당속으로 마술처럼 빨려들어 사라져갔다. 조금이라도 무언가 여운을 가질 시간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한꺼번에 몰려 입영장을 빠져나갔다. 돌아서 가는 운동장에 바람이 불어 나도 모르게 흘렀던 눈물이 차갑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방 제대할거야”

며칠 추위가 이어졌다. 바람이 차고 눈발도 날렸다. 건조대에 널려있던 옷을 걷어 개켰다. 아이의 청바지와 분홍셔츠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 얼마간은 빈방으로 비워져 있을 아이의 방에 침대커버를 바꿔 끼웠다. 침대 밑에 아이가 일으켰던 먼지들과 여러가지 부스러기들이 파편처럼 여기저기 남겨져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입고갔던 옷들이 오후에 택배로 돌아왔다. 겉옷과 속옷, 양말, 그리고 엉망으로 쓴 편지 한 통.

“더럽게 재미없어 힘들지도 않고, 스물셋에 이려고 있어야 되. 할말도 없어. 그냥 쓰라고 해서 쓰는거야”

어이없을 수도 있는 이 편지 한장에 그래도 감정이 동한 마지막 한 줄.

“걱정하지마”

또 한번 사물들이 흩어졌다가 한참 후에 모였다. 아들은 정해진 신병훈련소로 이동했다.

다시 따뜻한 봄날씨가 돌아왔지만 왠지 쓸쓸한 이 한기는 마음에서 오는 것일까? 어느 식귀절처럼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 아들이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에 매력을 느껴 나의 걱정을 날려 보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것의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무언가 다른 에너지로 채워진 아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나의 기대는 채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숭아

김영애 | 책향

전화를 받자마자 라비가

울었다. 공부 시간에 울고 있으니 당황스러웠다. 가만히 안아 주었다. 그는 내 품에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서툰 한국말로 며칠 전에 출산을 한 동생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정엄마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물어왔다. 라비는 대답했다.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아기가 둘이나 되는 라비의 남편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혼자 마음만 동동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말이 서툴기는 마찬가지인데 2년 먼저 시집왔다고 동생은 모든 것을 의지했다.

자신을 포기하고 국제결혼을 했고, 한국 남자의 아기를 낳았다.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미역국과 흰 쌀밥을 고봉으로 담아주었다. 한 달 동안

이나 계속해서 밥만 해주고 빨래나 집안 청소는 라비의 몫이었다.

이제 그만 미역국이 먹고 싶어도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 몇 번이나 자신에게 물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둘째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 또 시어머니는 미역국과 흰 쌀밥을 고봉으로 담아주고

“많이 묵이라, 많이 묵어야 젓이 잘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다. 한 달 내내 미역국과 흰 쌀밥을 먹으니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다.

이제 한국말을 전보다 잘한다.

“어머니, 나 미역국 말고 다른 것 묵고(라비는 시어머니가 사투리를 써서 사투리를 표준말보다 잘 한다.) 싶어요.”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다. 시어머니는 아무것이나 해 주는 대로 먹지 투정을 부린다고 눈을 찔렀다. 그래도 눈 찔림과 잔소리만 더 들었을 뿐 더 이상 해 준 것은 없었다고 했다.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먹고 싶었던 베트남 음식은 한 번도 못 먹어 봤단다. 먹고 싶은 것 못 먹으면 눈이 작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라비와 시어머니는 육교 아래서 무허가로 빈 땅을 점유하고 농사를 지었다. 가지, 호박, 고구마, 상추 등의 푸성귀들은 라비의 식탁의 주 메뉴였다. 가끔은 고기를 먹고 싶었지만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그 무허가 남새밭으로 출근해서 푸성귀를 따오고 며칠에 한 번씩은 밭둑에 심어 두었던 옥수수를 따왔다. 풀만 먹어도 살이 쪼다고 투정을 하면서도 먹은 밥은 금방 소화가 되었다. 고구마 순을 뜯고 호박과 가지를 뜯고 남편이 오랜만에 준 생활비 십만 원을 쪼개서 4만원이나 하는 호박즙을 내렸다.

5개월 된 아기를 업고 보따리를 두 개나 들고서 동생네로 가겠다. 버스를

다고 가야 하니 정류장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정류장에 그를 세워두고 돌아올 수가 없었다. 버스정류장을 몇 개쯤 지나자 빨리 세워달라고 했다. 태워다 준다고 했더니 가는 동안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집에는 잣난아기와 베트남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있었다. 베트남 아버지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짐을 내려놓고 나오는 나를 붙잡고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서 쪼갰다. 남자의 칼질을 당한 수박은 크고 두꺼웠다.

한국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용감하게 수박을 처음 본 손님인 내게 내밀 수 있을까? 체면치레하느라고 헛기침만 하고 있을게 뻔한 상상을 하니 따스함이 밀려왔다.

라비는 돌아오면서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나를 보냈다. 트럭에서 파는 복숭아를 한 박스 사겠다는 것이다. 라비가 사는 동네도 시장물가가 싸다고 우겨서 집으로 달려왔다.

나에게 그 복숭아를 안겨 주고 싶다고 했다. 그것으로 차비를 대신하고 싶다고. 나는 말을 잊었다. 차비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었다. 지금처럼 좀 다르게 생겼다고, 말이 서툴다고 주목받지 말고 라비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눈을 붉혔다.

보건의소에서 치아 검진을 했다. 충치가 6개나 되었다. 담당 간호사는 빨리 병원에서 치료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려 주었다. 간호사에게 라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내 전화번호를 남겼다.

전화가 왔다. '위기가정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주었다. 요즘은 국민자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되도록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섰다.

우리도 국제결혼을 해서 이민을 가던 시대가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해서 미국으로, 독일로 갔을까? 그들의 고통이 짐작되었다. 얼굴이 다르게 생긴 그

들은 힘들었고 멸시를 당했지만 견뎠다. 끝없는 근면함으로 아이들을 공부 시키고 일해서 지금은 타국에서 이민 2세들이 당당하게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서른 살쯤 많은 신랑을 만난 이들의 2세도 당당하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긴 것이 다르고, 말이 서툴러도 그냥 그들을 바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돌아오던 길에 마트에 들러 복숭아 한 박스를 샀다.

언젠가

기억에서

‘관용’을 읽고 ● 옥고은

‘6도의 악몽’을 읽고 ● 이태용

‘길버트 그레이프’를 읽고 ● 이태용

‘호모 사피엔스, 퀴즈를 풀다’를 읽고 ● 이태용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 전홍익

불황 속에 살기 위해서... ● 파피용

조지프의 ‘마당’ ● 글쓴이 없음

탐욕의 시대 ● 김영애

피아노 치는 여자 ● 김영애



일반인 작품

감상문

‘관용’을 읽고

육고은



이 책을 처음 본 지는 몇 년 됐다. 내가 좋아하는 역사에 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져다준 책이 돼어 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하고 줄곧 관심을 가져왔지만 사실 옛날이야기로만 여겨왔지 그게 내가 사는 이 순간과 미래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당초 이해하지 못했다.

제목대로 고대부터 1차 대전 때까지 - 이 책을 쓴 시기가 20년대이므로 그 시대에 이런 책이라니 참 앞서갔다. 사실 난 그 시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회색빛 세상인데 - 관용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술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 절절하게 나와 있다.

사실 종교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종교는 그저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탐욕을 위해 동족상잔을 정당화할 명분인 경우가 다반사였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 저자의 책이 거의 그러는데 특히 중세 때가 참 잘되어있다. 그런 자료는 어디서 구했는지, 중세는 암흑기여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모든게 정제되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책만 봐왔던 걸 생각하면 경탄이 절로 나온다.

지금 사형제도, 안락사, 간통죄 같은 것에 대한 찬반논란이 내 손자의 손자 세대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때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벌이는 이런 논쟁을 어떻게 복지. 역사 교과서는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있을까.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였다. 지금까지 큰 영향을 끼쳐서 널리 알려진 사건이나 인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엔 뜨거운 감자였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져서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사건 또한 많다.

종교개혁이 루터와 국교회와 칼뱅 위그노 예수회 이런거 말고도 더 있었을 줄은 몰랐다. 교과서나 대부분의 역사책에선 그것만 나왔으니까 나 같은 보통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들은 더 다양한데…….

“재세례교도 들어봤나요? 난 캄디드에서 딱 한번 봤거든요.”

역사의 무대에 뚜렷한 흔적과 공헌을 한 인물로 남을 확률은 도박에 가깝다. 당대에 성공했다고 유명했다고 후세에까지 그런다는 보장은 사실 거의 없다. 모든 왕과 대통령이 나오던가?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을 외우느라 역사시험이 더 짜증나지겠지. 난 고려시대 왕들 이름 외우는 것도 귀찮았고 시험이 끝나 차마 다 까먹었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연히 겹쳐서 역사에 남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아메리카가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는데 여기의 사연이 소설수준이다. 본인이 이 사실을 알면 어안이 병병할 것이다.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역사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인물이 역사에 흔적을 남길 희망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말이 쉽지 보통일이 아니다. 주변사람에게 괴짜 취급 받는 건 운이 좋은 수준이고 자기 목숨과 어쩔 땐 가족 친구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는 있다.

내가 저 시대로 간다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전해줄 것이다. 그깟 성경내

용 때문에 서로 전쟁까지 벌이다니? 한심하다. 어떻게 목욕을 그렇게 안하고 살았지? 지저분해.

이런 것들은 역사를 시험공부 때문에 연도 외우거나 왕들이 권력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가족들도 죽었다라는 식의 옛날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을 때 나오는 소리다.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술하다. 심지어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한 이 책에서는 진보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들쭉날쭉 하는 거라 했다.

초등학교 때 전기가 의학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이런 혁신적인 것들은 18세기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겨났다는 식으로 배웠다. 그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18세기에 와서 말이다. 그것도 다른 나라 다 봐두고 유럽에서만, 그렇게 배우면서도 일련의 의문은 계속 있었다.

정말 18세기 이전에는 저런 거 아무도 생각 못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명도? 그 이전엔 힘들고 불편해도 쫓불 켜고 세탁기가 없어 힘들게 손빨래하고 불결한 푸세식 화장실 쓰고 예방주사도 없어서 전염병 한번 돌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왕의 횡포에도 굽실대고 껌소리 못하고 살았다가 18세기 와서 사람들이 그것도 유럽에서만 깊은 잠에서 깨듯이 저렇게 변하기 시작했나?

훗날 역사책들을 보면서 의문이 풀린 게 참 다행이다. 내가 20년 일찍 태어났거나 삼시세끼 쟁기기도 버거운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태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진보의 속도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게 맞나보다. 유럽에서 자신들의 지성, 사상, 생활을 나아가게 하는 데는 모델이 반드시 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고대 그리스 로마와 이슬람권 국가들, 그리고 예전엔 강대했지만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자존심 센 여러 나라들에서 알게 모르게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술한 시행착오와 고생이 있었다. 지금이라고 절대 예외가 아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완전히 가깝게 진보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는 듯한데 후손들이 코웃음을 칠까 걱

정된다.

12, 13세기 도시가 발전해갈 때, 르네상스시대에 로코코시대에도 자기들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고 있다 믿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깨뜨리는 대사건이 뒤이어 꼭 터졌다. 흑사병이나 종교개혁광풍,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이후 왕정복고 같은 것들이 여기 저자가 살던 시대도 꼭 그런 시대였다. 과학기술로 인류는 진보하고 지구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다가 1차 대전이 터지고, 대공황을 맞고 군국주의 국가들이 들어서서 제정신이 아니던 시대였으니까, 지금 상황을 봐도 예외는 아니지. 엄마 아빠 세대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재현되고 있으니까,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만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가!

이 책에서는 불관용의 모든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삶에 대한 여유는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관용이란 미친 것이겠지. 편집중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트집 잡고 성공과 경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앞의 일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 같은 건 철모르는 것이라고 몰아가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많은 영혼들이 품었을 가능성이 영원히 잠들었겠지.

이런 상황이 나아지려면 천년만년 하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어차피 진보라는 건 끊임없이 고생하는 현재진행형일 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삶의 의무니까 - 이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을게다. 나 같은 소인배에겐 천근만근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이 아니었으면 역사를 통해 생각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데 한참은 더 걸렸을 테지. 한 개인의 인생에도 진보는 일직선이 아니다. 절대로.

‘6도의 악몽’을 읽고

이태용



영화 ‘투모로우 The day after

tomorrow’는 지구의 해류 흐름에 이상이 생겨 갑작스러운 추위가 닥치고 빙하기로 돌아가는 가상의 현실을 예고하는 재난 영화다. 다가오는 현실이 무서우면서도 체온을 유지하고자 도서관의 책을 찢어 불을 지피는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은, 이 영화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몇 년 전부터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서적과 자료들, 논문, 정책 등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거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만 긴장하게 되는 묘한 심리구조를 가진 탓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우리의 심리마저도 이야기하고 있다. 미래의 어두운 현실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대재앙, 즉 모든 생물의 멸종이라는 아찔한 결과뿐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책은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는 경우부터 6도 상승하는 경우까지를 설명한다. 각 주제들은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를 철저히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막연히 저자가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연구해온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기온 6도의 상승은 별거 아니다. 겨울이면 영하까지 떨어지고 여름이면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무려 수십 도의 차이에도 잘 버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착각하지 말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1도 상승은 한날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땅덩어리의 기온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이야기한다. 이런 기준을 두고 보자면, 기온의 6도 상승이 아닌 3도 상승만 넘어도 현재와 같은 지구의 모습은 사라지고 심한 홍수와 가뭄의 양극화와 함께 다양한 생물의 멸종, 식량난과 지구의 지리적 환경마저 바뀌어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결국 멸망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다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후와 기온의 변화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적이 현재에 나타나고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 투영되는, 다소 후천적이고 은근하게 다가오는 끔찍한 재앙이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현재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중지시킨다 해도 기온 1도나 2도의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 하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도 상승. 약간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미국의 일부 지역이 예전과 같이 사막화(샌드힐스)된다.

"1도 이하 상승의 온난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미국 서부는 다시 한 번 장기적인 가뭄의 재앙을 입을 수 있다. 그것은 1930년대의 재난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로 농업을 파멸시키고, 사람들을 거주지 밖으로 내몰 것이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지구의 생물들은 빙하기와 간빙기, 그리고 현재와 같은 온난화는 아닐지라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재앙을 겪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의 온난화는 자연적 발생이 아닌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상되는 악영향 가운데 첫 번째가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것은, 멕시코만류로 알려진 대서양의 따뜻한 해류가 주춤주춤 느려지면서 유럽 북서부 일대의 기온이 곤두박질치리라는 예측이다.”

저자는 이 시나리오가 현재까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빙하가 녹아 바다에 민물이 유입됨으로써 짙물이 심해로 내려가는 상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2004년에 측정된 결과 대서양의 순환이 30% 정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았던 ‘투모로우’는 결코 상상만이 아닌,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무서운 가능성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1도 상승으로 인한 지구의 위험은 물과 얼음의 감소와 그로 인한 여러 지역의 사막화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실 인류에게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닥친다. 예전 사하라 사막은 동물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있다. 바다보다 땅의 기온이 먼저 올라가 저기압을 형성하는 것이 몬순 기후인데 온난화로 인해 몬순이 증가하면 아프리카 사하라 지대가 초원지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지구 전역에 가뭄이 심해진다. 아프리카 북부에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가뭄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2100년까지 1도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지구 1/3에서 물이 마르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비가 집중해서 내리고 비가 오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가뭄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막은 더 넓어지고 일부 사막은 초원이 될 수도 있지만 가뭄은 널리 퍼져서 물과 식량의 부족, 여러 지리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1도 상승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다. 흔히 알려

진 섬나라 투발루의 침수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2도 상승은 어떨까.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어 바다가 산성화되고 탄산수가 됨에 따라 플랑크톤과 생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 폭염으로 사람들도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지구의 환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온도와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극지방이 한때 초원화 되거나 얼음이 녹아 땅이 드러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쟁과 투자 등의 다양한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식량은 줄어들지만 일부 극지방에서는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물 부족과 식량의 감소로 인류 뿐 아니라 생물 전체에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들의 멸종은 단순히 미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사회는 근본적으로 자연생태계에 의존한다. 생명은 지구의 영양 분 순환을 조절하기도 한다. 일부 역할은 기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생태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플라이오세(선신세) 시대의 나무들이 남북극에서 발견된 것은 이산화탄소 가설의 성립을 증명한다. 극지방이 지금보다 15도 이상 따뜻했고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온난화는 3도이하의 상승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엘니뇨는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1912년에도 엘니뇨로 인해 전 세계가 위협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다 한다. 최근에는 1997~98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의 문제는 엘니뇨의 일시적 발생이 아닌 장기화 및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학자들이 온난화와 엘니뇨의 관계를 밝히고자 연구 중이다.

호주는 예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안전한 것은 아니며, 기온이 3도 상승하면 건조 상태가 심해지고 화재가 자주 발생할 것이다. 건조하고 더워지는 것

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호주의 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과 더위와 가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지구온난화에 따라 호주는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갈 것이다.”

마야인들은 18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결국 가뭄으로 인해 멸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을 끼고 있지만 빙하가 녹기 시작하여 물이 흘러가 버리고 나면 가뭄이 시작되어 식량 위기 및 경제난을 겪고 국가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가뭄으로 힘들어할 것인 반면에, 뉴욕은 현재도 이미 저지대가 많아서 가끔 수몰 위기를 겪곤 하는데 앞으로 지구 기온이 3도 오르면 뉴욕 전체가 물에 잠기고 경제난을 겪을 것이다. 가뭄이 있는 곳은 더 심해지고 비가 많은 곳은 더 많은 양의 비가 오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말라리아나 뎅기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온난화로 인해 그 지대가 넓어져 유럽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 모든 일들로 인해 민족 대이동이 발생한다.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을 향해 이동하고자 하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고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멕시코나 미국으로의 이주가 시작된다. 기존에 인구 과밀 지역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인류의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

저자는 3도 이하의 상승이 가장 현실적인 한계치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사실 지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물과 식량의 부족, 더위와 가뭄, 때로는 홍수가 생활을 힘들게 하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4도에서 6도 상승에 대해 저자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실제 내용이 짧다) 그 내용들은 대개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나라의 40%에 달하는 경제를 맡고 있는데 이 지역은 4도 상승으로 50cm의 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현재도 저지대가 많은데 그 때가 되면 대부분이 수몰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야 한다. 그 밖에 여

러 나라의 바다에 인접한 도시들도 위험하다.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이 25미터까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양쯔 강 등에 댐을 건설하여 물을 다스리려 하지만 바다는 이와 같이 다스릴 수가 없는 곳이다.”

남극에서 얼음 덩어리(빙봉)가 녹는 현상이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무려 50미터나 상승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다.

저자가 중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흥미롭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구 대국에다 최근 들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와 환경오염이 급증한 곳이다.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언젠가 중국이 세계를 위협에 빠지게 할 수 있으리란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 역시 중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생태자본을 고려해볼 때 경제성장은 한마디로 재앙이었다. 중국 자연의 생물다양성의 5분의 1이 위기에 처했다. 호수의 4분의 3은 농약이나 산업폐수로 오염되었고 황허 강은 고갈되다시피 했으며 하류의 많은 부분이 크게 오염되었다.”

결국,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 등이 전 세계에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인구 대책은 환경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많이 소비하고 많이 먹는 것은 석유, 식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지구가 겪었던 것처럼 생물이 살 수 없는 뜨거운 지구가 되어 현재까지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현재의 결과는 당장의 것이 아닌 지금까지 과거에 만들어온 것이니, 당장 중지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중지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가스들도 인해 온난화

가 진행되어 0.5에서 1도의 상승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온실 가스의 배출을 유지한다면 기온이 6도가 아니라 심지어 7도나 8도 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대재앙의 결말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목표는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권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 시장으로 보고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이상적인 환경을 위해서라면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긍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그 권리를 되파는 상업적인 측면이 아닌, 탄소배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의무제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인도는 1톤, 중국은 4톤, 미국은 12톤을 배출하므로 이를 60% 정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평등이다.

그래서 선진국이 적게 줄이는 만큼 다른 가난한 나라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협의 중인데, 이를 축소 수렴 방식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의 거래로 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의무제로 바꾸는 것만이 온난화를 막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지금 1년마다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양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간으로 따질 때 100만년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우리 모습을 단순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공한 것으로 인정받고 독특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경우 이는 사회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즉 사적인 안락과 소비패턴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설득력 있으면서도 오래된 유형의 '부인'은 백마 탄 기사와 같은 기술이 나타나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저자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난화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행동이나 실천은 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그런 에너지나 바이오에탄올 등이라 해서 모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온난화를 막으려면 화석연료인 석유를 줄이고 열대림을 보존하는 등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한데, 상당수의 대체 에너지는 열대림을 개간하여 그 땅을 이용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보상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차 수를 줄이고 풍력발전기와 태양열발전 같은 자연적인 장치를 통해 에너지를 이용하며 무엇보다 아껴 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개인의 생활을 바꾸려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좋은 차에 멋진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라면 “나 하나 정도는 어때”라는 회피적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전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정치적으로, 탄소 배급제를 의무 실시하여 각자가 배출하는 탄소에 제한을 두는 식의 생활 변화가 없으면 지구는 결국 2040년을 지나 2050년경에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그 피해를 인류가 고스란히 떠안아, 멸망은 아니더라도 근접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현실로 돌아가 보자. 따뜻한 겨울이라고 좋아할 이유도 없으며 바다에선 나는 어류가 달라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좋아할 이유도 전혀 없다. 뿌옇게 흐린 날씨와 스모그 현상, 건조한 기후로 인한 잦은 산불, 바다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 알프스 저지대에서 펼쳐지는 초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당장의 생활이 안락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지구의 온난화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지나 한계치로 향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아끼고 줄이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것은 대재앙과 멸망임을, 모두가 느끼고 ‘실천’ 할 때가 아닐까 싶다.

겨울은 길었다. 아니 지금도 겨울이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별로 쓰지 않고 실내 온도를 낮추고 육식을 줄이고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작은 노력들을 더해가는 이유는 지금의 내가 편안한 현실을 즐기기보다는 먼 훗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지구라는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많은 생명에 대한 책임도 지닌 '인간' 이기 때문인 것이다.

‘길버트 그레이프’를 읽고

이태용



길버트 그레이프는 15년 이 넘은 오래된 영화다. 집을 나간 형, 실직한 누나, 집에 갇혀 생활하는 엄마, 발달장애 동생, 사춘기 여동생 등과 함께 사는 주인공 길버트는 엔도라를 떠나지 못하고 작은 식품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골 청년이다. 어릴 적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어머니는 삶을 포기하고 집에서 TV를 보고 먹는 것에만 집착하며 가족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웃집 카버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는 길버트는 어느 날 캠핑카가 고장 나는 바람에 마을에 머물게 된 베키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끌리면서 새로운 사랑을 찾고자 카버 부인과의 관계를 끊는다. 카버 부인은 슬퍼하고 이를 달래던 카버씨는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되며, 카버 부인은 결국 마을을 떠난다.

동생 어니의 열여덟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역할을 나

는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길버트는 어니를 때리고 마을을 벗어나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화해하고 어니의 생일을 멋지게 치른다. 생일을 치른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조용히 숨을 거두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대신 집을 태워버리는 가족들은 그렇게 헤어져 각자의 삶을 찾는다.

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참으로 새롭고 신선하다. 여전히 우울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조니 뎀은 길버트의 역할을 무난하게 해내고 있으며, 예쁘고 발랄한 모습의 줄리엣 루이스는 베키에 어울린다. 특히 바보 연기를 보여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최고라 할 수 있다. 잔잔한 음악이 편안한 영화다.

영화나 만화를 보는 것은 그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작품을 이해한 후에 소설을 읽게 되면 영화 장면과 배경, 대사를 통한 전개와 문장을 통해 묘사의 차이를 확실히 느껴볼 수 있어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책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예전에 반지의 제왕을 읽고 나서 이해하지 못한 배경이 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는 그려졌지만 정작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책을 보고 싶어지는 것은, 영화에서 그리지 못하는 세밀한 묘사를 책에서만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길버트 그레이프는 그런 점에서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이다. 생각과 달리 너무 두꺼운 책의 분량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짧은 대사로 진행되기에 실제 분량은 그리 많지 않고, 우울한 잿빛 장면들을 그리는 영화에 비해 밝고 장난스러운 소설 속의 장면들은 책을 읽는 동안 가끔 웃음을 전해주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만나지 못한 길버트의 긍정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조니 뎀의 우울한 눈빛을 통해 어른스럽고 삶에 지친 길버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였다면, 소설 속의 길버트는 다소 장난스럽고 반항기가 넘

치는 소년처럼 묘사된다. 소설이 다양하고 세밀한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영화는 배경이나 장면을 통한 암시에 집중하고 있다. 소설 속의 베키는 안경을 쓰고 담배를 피고 당돌한 느낌을 주는 사춘기 소녀다. 영화에서 처럼 자전거를 타고 등장한 환상 속의 그녀이기보다는 나이에 비해 철없고 장난스러운 길버트에게 어울릴 법한 사춘기 소녀인 것이다. 그러나 베키는 생각이 깊은 소녀다.

길버트는 아버지의 죽음도 무던히 생각한다. 영화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우지 못해 지하실에 내려가지도 못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베키가 마을에 등장한 것도 캠핑카와는 관계가 없다. 부모님의 이혼을 앞두고 할머니 댁에 잠시 들렀을 뿐이다. 그녀는 길버트를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함께 떠나기 위한 현실적 제안을 하는 모습은 아니다. 어린 소녀로 등장하는 베키는 길버트의 등불이자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홀로 서 있는 낡은 집, 그 앞을 달리는 오래된 트럭, 그리고 길을 이끄는 베키의 자전거와 멀리 보이는 탑. 요즘과 같이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길버트는 뉴스를 통해 마음을 전한다. 살인 사건 소식을 듣고 “이런 공간을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 이런 사람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 이해가 됐다.”고 말한다. 가족들, 특히 엄마는 길버트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족이란 관계에서 소중한 것은 각자의 존재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제니스 누나와 래리 형, 한쪽 눈을 잃은 어니의 모습 등도 영화와는 다르다. 작가는 영화를 만들 때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 하나는 엄마가 어니를 구하러 집을 나서는 장면과 마지막에 집을 태우는 장면이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었다는 작가의 평가 달리, 실제 영화와 소설의 느낌은 제법 다르다. 이는 두 가지를 모두 보고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베키는 길버트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그녀는 길버트에게

“나이는 우스운 거야. 그건 진실을 가려”.

“다른 차원에서 보면 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라고 말한다. 후회라는 말이 가장 추하다는 베키의 말에 길버트는 가족, 엔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싫다고 할 정도로 가족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소설 속에서 조금 부적절한 장면들도 등장한다. 길버트의 행위들이라든지 비서와 바람을 피우는 카버씨의 모습 등이 그러하다. 소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자 한 의도였을 테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 영화가 다양한 장면의 전환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면 소설을 여러 요소들의 인과 관계를 분명히 하며 당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요소나 장면들은 소설의 재미나 감동을 떨어뜨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어주고 있다.

20대 초반의 청년 길버트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할 일이 많고 열정을 가졌지만 세상을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길버트의 모습에서 문득 그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카버 부인의 말을 통해 마을을 벗어나고자 결심했던 길버트는 랜스 닷지의 말에서도 탈출의 계기를 찾는다. 그러나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고 자신의 자리가 그곳임을 안다. 생일을 마친 후 엄마의 죽음 이후 모두가 화해를 하고 집을 태워버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소설은,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은 불편하고 불만족스럽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랑과 가족애를 안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탈출구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가야할 곳이 바로 이곳임을, 사랑과 희망을 찾아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임을 말하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 퀴즈를 풀다’를 읽고

미태용



영국의 철학 대중화에 공헌한

두 사람의 저자가 쓴 재미있는 철학 '퀴즈' 책이 등장했다. 인간이라는 거창한 집단을 이야기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이라는 작은 존재의 생각이 과연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것인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좀 더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부터 약간의 긴장을 더하고 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옷이 노란색으로 보인다면 실제로는 그 옷이 녹색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옷을 노란색으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우리의 말과 실제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는 아이들이 공부든 뭐든 잘 하고 발전적으로 변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하나씩 파헤쳐보자는 것이다.

여러 장으로 구성되는 이 책은 각 장마다 간단한 문제를 내고 그것을 독자가 풀도록 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그에 대해 평가한 후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예를 들자면 1장에서는 모두 30개의 문제가 등장한다.

이 문제들은 순서는 뒤섞여 있지만 서로 모순되는 15쌍의 문제들인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덕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그 일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1장의 주장이다. 경우에 따라, 아니 어쩌면 상당한 부분에서 모순된 답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모순은 '긴장도'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6점이 넘으면 '엄청나게 민감하게 사고를 하거나 모순 덩어리'라고 정의한다.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니 9점. 나 역시 모순 덩어리인 것일까.

책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저자의 주관적인 접근일 뿐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현실성을 감안한다 해도, 이 기준은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부족하지 않다. 한 마디로 재미있는 시도를 통해 나의 생각을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셈이다.

철학이라 함은,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처럼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가며 나의 생각과 존재를 파악하고 인간의 사고와 유형을 분석하는 일은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설령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철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낱 말장난이나 퀘변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생각'에 빠져드는 일은 한번쯤 겪어볼 가치가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가 과연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점수와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저자가 내세우는 모순된 답을 썼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읽고 나면 그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사고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의미가 있다. 사실 모순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긴장도 5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목적을 위해 환경이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찬성)' '자전거나 도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안 된다.(반대)'로 답할 경우 이는 모순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절반이 넘는 참여자가 이렇게 답을 했고 긴장도를 높였다고 한다.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앞의 사실은 하나의 '가치관'이고 이 기준에 따르면 후자는 '반대'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을 막고자 한다면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전거,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함정이자 약점은 세상에 '예외'와 '선택'이 있다는 점이다.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해도 '예외'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자동차를 써야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삶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다. 즉 전자는 나의 이상적인 가치관을 묻는 것이지만 후자는 타인의 답을 '제안'하는 셈이니 당연히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객관적 윤리나 선악의 기준과 나 자신의 개인적 상황이나 판단, 현실을 동일시하여 모순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시도는 다소 억지스럽고 인위적일 수도 있다. 우리는 비록 나 자신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틀의 윤리와 가치관이라는 상자에 갇혀 살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클 경우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의 번영과 공동의 생활을 위해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의 현실을 맞춰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다른 경우도 있다. 어떤 객관적 사실이 실은 당사자들에게는 주관적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에 대해 저자는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이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은 분명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진리와 진실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철학은 생각을 표현하는 논리, 윤리, 심리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진다. 변화하는 생각의 많은 부분을 모두 글과 학문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럼에도 이를 체계화한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겠으나 살아 있음은, 꼭 가치관의 모순이나 생각의 변화를 닦할 것 없이 현실과 상황, 예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생각 자체를 원칙적으로 변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역시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저 사람의 생각이 변할 수 있고 때론 모순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는, 생각에 대한 고찰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논리의 허술함에 관한 것이다.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맞히면 전 세계의 3/4에 드는 범주라고 한다. p 는 q 라는 명제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인데 실은 논리라기보다는 함정이 있는 문제다. p 가 q 라는 것을 뒤집어 q 면 p 냐고 묻거나 또는 p 가 아니면 q 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다.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한 물음이지만 질문은 책임이다. 결론은 자신의 선택에 언제나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를 주인공으로 할 경우와 남을 주인공으로 할 경우, 잘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인 심리도 드러난다.

네 번째는 비슷하게 윤리에 관한 문제들이다.

여기에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지리적 거리, 멀고 가까운 것에 대해 도덕을 얼마나 지키고자 하는가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 물론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인 경우에 훨씬 느슨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는 행

동과 태만, 행동하는 것과 방관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이다. 네 번째는 규모, 그러니까 10명을 위해 한명을 희생하는 것과 10만 명을 위해 만 명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다. 이런 도덕 기준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좀 곤란하다.

다음은 나만의 신을 만나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의 무한한 능력과 전지전능함을 바탕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답을 한다면 그 결과는 이렇다.

“신에 대한 당신의 청사진은 논리적으로 볼 때 엉망진창이다. 당신은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즉 ‘일관성이 없는 마음대로’라는 뜻이다. 이 질문의 목적은 두 가지. 신에 대한 개념이 그것 자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사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가……. 주어진 질문 자체에 모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을 연결하여 질문 함으로써 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지전능함의 의미 속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야기 한다. 형이상학에 관한 약간의 접근을 시도한 주제다.

신의 존재와 이성적 판단 및 논리적 분석에 관한 부분은 제법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쨌거나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모순을 보여주기도 함을 이야기한다. 책의 결과나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매달리길 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모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생각을 좀 더 합리적으로, 때로는 나의 모순이 자연적인 행동임을 인식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낫겠다.

7장. ‘터부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에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운 종류의 행위가 있다. 어떤 행위가 완전하게 개인적이고, 아무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데도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 될 수 있을까? 결론, 한 문장을 인용해보자.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도덕적 입장과 격세유전의 본능적 감정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우리의 신념이 왜 유효한 지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항목은 정치성을 띄고 있기도 하다. 문제를 간단히 읽고 답하지 않고 깊이 생각할수록 복잡해지고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나 자신을 기준으로 간단히 답하면서 다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이나 윤리적 기준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주관적 답을 함으로써 나에 대해 분석하고 나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다. 윤리적인 판단,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진정한 예술의 가치, 그리고 끝으로 다시 논리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철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나 자신에 대해 퀴즈를 내고 나를 분석하면서 나의 도덕, 윤리, 논리 등 다양한 성향을 살펴보고 점검하는데 의미가 있다.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어려운 시기라면 한번 읽고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는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것도 좋아 보인다.

책의 문제들은 필로소퍼스 매거진이라는 저자들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결과나 평가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이 책의 목적은 철학이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항상 함께 하는 것이며 이렇게 나의 생각과 존재를 살펴봄으로써 나의 인간다움을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변화의 계기를 준다는데 있을 뿐이니까.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전홍익 | 과학도서관 동아리



실용서를 독서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데는 개인적으로 불만이다. 실용서는 지식의 습득에 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작품을 읽으면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하여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로 감동을 받고 희열을 느끼는 맛이 있으며 독자의 온갖 상상력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맛이 꽤 괜찮다. 허나 실용서는 그러질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안하면 언제 접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본서를 접하였다.

머리말에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보고

“미래사회는 지식이 권력이다.”

라는 문구에 당시 의과대학생이었던 저자의 머릿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말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책의 어느 구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위인들을 볼 때면 아! 나에게도 어느 날 Feel이 딱 꽂히는 그러한 책과의 만남이 있을까? 부럽기 그지 없다.

본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책이다. 돈을 얼마 만큼 모아야겠다는 명확한 목표, 종자돈의 필요성, 그리고 종자돈을 모으기에 은행의 복리이율로부터 시작하라는 충고는 차근차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결국은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서두루지 말고 기초부터 다지라는 이야기이다.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위험은 덩달아 커진다. 따라서 투자성공률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규모의 자산을 확보할 때 까지 예금처럼 가장 위험도가 낮은 방식으로 투자해서 종자돈을 모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자는 10억원이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므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나 빈자는 어차피 도달할 수 없다면 도박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극단적인 위험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투자에서 부자는 위험을 지지 않음으로서 계속 부자로 남고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쉽게 부담함으로써 대부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곰곰이 숙힐 필요가 있다.

부에 대한 접근이 부자와 우리와는 다르다는 인식도 중요하다. 부자는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익만 보장된다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움직인다.

막연히 부를 쌓기 위한 노력이 허상이 안되기 위해서는 출발 자세가 예사로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마음의 각오가 남달라야 하겠다.

부동산을 하려거든 강남은 아니고 5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가 낫고 경기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낫다고 하였다. 우리는 경기도의 북부에 있으니 이 또한 잘 됐다고 자위해본다.

실물자산(원자재나 금등)에의 투자는 앞으로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거나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면 실물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지금처럼 어중간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지속 상승할 수 있는 묘한 국면에 있다고 하면서 유동성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저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는 근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다고

느껴졌다. 지금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래의 두 가지의 말에 절 대적으로 공감이 간다.

첫째, 정보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어떤 정보가 나에게까지 왔을 때는 대부분의 정보가 남들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고로 절대 정보에 목 말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정보를 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를 예측하는 자료로 삼으라는 저자의 말은 정보에 쉽게 감염되어 버리는 투자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투자는 상대가 있는 제로섬 게임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주식투자는 겸손해야 한다. 틈만 나면 자신을 폄하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얹잡아보라고 저자는 강조하였다. 자신을 거꾸로 세워 털어보고 스스로를 혹독하게 비판하라고도 하였다. 대개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도취, 즉 나르시즘 때문이다. 아마도 주식을 해본 사람은 이 말에 쉽게 공감이 가리라. 그러나 저자는 박경철의 인간미가 느껴지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다.

“당신이 샐러리맨이라면 뒤편 치지를 한탄하며 40대에 퇴출할 운명을 걱정하면서 증권사 객장을 들락거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선두로 나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당신은 혹시 조기은퇴가 걱정이 되어 재테크 강의를 쫓아다니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 은퇴보다는 임원이 되고 CEO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는 자세야 말로 그 어떠한 재테크보다도 낫다는 말이다.

아이들에게 한 권씩 사줘야겠다.

불황 속에 살기 위해서.....

파피용 | 과학도서관 동아리



“공황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황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책 〈불황의 경제학〉 표지 뒷면에 기록된 글이다.

처음 책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이, 왠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좌파적(?), 진보적) 시각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꼼꼼하게 책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책은 세계 경제에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물론 폴 크루그먼은 진보적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불황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제 1장에서

“핵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경고를 무시하다.’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 일어났던 위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였던 부분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테킬라 위기 발발 후 14년이 지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1994-1995년의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한 금융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우리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엉뚱한 교훈을 배웠음이 명백해졌다.”

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나 구제 금융 등의 외부적인 부분이 아니었는지 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단순히 멕시코와 워싱턴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당시의 구제책은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해 마련한 계획이 아니었다. 정부의 진지한 태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나온 행동이었다.”(p.74).

또한 제 3장은, 1990년대에 위기에 빠진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서술한다. 일본의 경기 침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황, ‘성장후퇴’(growth recession)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저자는 일본의 경제가 수출 증가라는 호재로 인해, 2003년부터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탈출을 했다고 할 수 없는 불확정적 상태로 진단하고 있다(2009년 4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 폴 크루그먼은,

“90년대 말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의 비판을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고 한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미국 뉴욕소재 외신기자단 간담회

에서 참석해 '90년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금 미국 정부도 당시 일본과 똑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일본을 비판했던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뉴욕지사발로 15일 보도했다.

특히 제 4장 '아시아의 붕괴'에서, 한국과 연관된 부분들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국의 재벌은 본질적으로 현대식 기업을 가장한 가족회사다. 소유주들은 수십 년 동안의 특별대우에 익숙해져 있었다.(그들은 각종 대출과 수입허가, 정부 보조금 등에서 우선권을 지녔다) 재벌은 그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다.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깔끔한 시스템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35년 동안 매우 훌륭하게 기능해왔다.”

이 부분은 한국 경제, 특히 한국재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하게 했다.

제 5장 ‘부적절한 정책’, 제 6장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제 7장 ‘그린스펀의 거품’, 제 8장 ‘그림자 금융’, 제 9장 ‘공포의 총합’, 제 10장 ‘돌아온 불황경제학’ 하나 하나의 내용은 세심하게 살펴 볼만하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 경제가 1930년 대의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서

“비상 상황”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당장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구조 작전이다. 전 세계의 신용 시스템은 마비 상이며, 이 글을 쓰는 지금 세계적인 불황은 계속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야기한 경제적 취약점들을 개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잠시 미뤄두기로 하자. 발등의 불을 끄는 일이 먼저란 얘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이 행해야 할 일은 두 가지, 바로 신용경색완화와

소비 지원이다. 신용경색완화는 소비 지원보다 더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그리고 조만간 해야 할 일이다.”(p.228-229).

저자는 '아이디어의 힘' (결론) 부분에서,

“불황경제학은 공짜 점심이 있는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짜 점심에 손을 대는 방법만 알아내면 된다. 사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분명히 치유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의 번영을 막는 다는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장애물은 인간의 정신을 교란시키는 낡은 원칙들뿐이라고 나는 믿는다.”

로 책을 마무리한다.

〈불황의 경제학〉은 어려운 경제학 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책도 아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불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하는 작은 준비를 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조지프의 ‘마당’

글쓴이 없음

“와! 〈창 너머〉를 쓴 찰스

키핑 작품이다!”

그 만의 독특한 화법이 눈에 들어와, 서가에 꽂힌 책을 뽑았다. 아아, 스카 알렛이 타라에 갔을 때의 느낌처럼 난 그의 그림 안으로 들어갔다. 〈창 너머〉에서처럼 여전히 어둡고 밝은 색들과 어지러운 선들이 서로 어울려 그림으로 나타난다.

소년의 머리는 가을 들녘처럼 노랑색이면서도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은 색을 띤다. 해리포터처럼 안경을 썼지만 그의 얼굴엔 수심이 있다. 내가 왜 그렇게 찰스 키핑의 그림에 마음이 끌릴까? 복잡한 색이나 선만큼이나 그의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일까?

내용은 아주 단순하다. 담이나 울타리 돌바닥 같이 생명이 없는 조지프의

마당에도 비와 햇볕과 바람과 눈이 내린다, 어느 날, 고물장수에게 녹슨 고철과 바꾼 화분을, 돌을 들어 낸 마당에 심으면서 조지프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비와 햇볕, 바람과 눈이 그의 마당에서 세월을 뿌리지만 고물장수에게서 나무를 받기까지는 그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무로 인해 그는 관심이 생겼다. 아이들이 주입식으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족쇄가 되고 사슬이 되어 아이들을 묶어 놓을 뿐이다.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심기 위해, 그는 돌을 들어내는 수고를 한다. 그건 조지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아이가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 하는 수고가 그림에서는 보인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폈을 때 조지프는 예쁜 꽃을 꺾었고, 꽃은 죽었다. 일 년이라는 세월이 다시 지나기를 조지프는 기다려야 했다.

나무에서 잎이 다시 피기 시작했을 때 조지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꽃이 다시 폈을 때 조지프는 꽃을 꺾을 수가 없다. 하지만 벌레와 새와 고양이를 쫓아내고 외투로 나무를 덮어준다. 꽃을 보호 하려다가 꽃을 또 죽였다. 조지프의 표정은 어린아이의 표정을 넘어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하다. 삶 속에서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자연은 혹은 시간은 그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준다.

일 년이 흐르고 꽃이 피었을 때, 더 이상 조지프는 꽃과, 벌레와, 새와, 고양이를 쫓아내지 않는다. 그리고 해마다 그 나무가 자라나 마당에 꽃이 가득 하게 됐을 때, 꽃과 벌레와 새와 고양이가 함께 어우러져 조지프는 행복을 느낀다.

조지프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무엇을 실패했을 지도 아는 거다.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과보호 하는 부모들처럼 그도 나무를 그렇게 보호했다.

사람은, 너무 일을 많이 시켜도 지쳐 버겁고, 너무 일을 안 시켜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능해진다. 나무의 벌레처럼, 사람도 그 시기에 적당한 고난이

필요하다. 비와 바람이 나무를 더욱 견고하게 하듯,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삶을 배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험은 사람을 살아 있게 한다.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것! 그 것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다. 그가 자기 마당에 꽃을 살리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은, 남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안다는 뜻이다.

찰스 키퍼! 우리 큰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그 해 1988년,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살리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그 능력이 그 해에 태어난 우리 아들에게 옮겨졌으면 좋겠다. 심리적으로 병들고, 죽어 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갈라파고스]

김영애 책향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글러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가리켜 '세계화지상주의자'라고 했다. 그들을 '수치의 제국'을 관장하는 지배자들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원제는 수치의 제국이다. 엘 고어가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들춰냈다면 지글러는 사회문제, 빈곤이나 빈부격차, 기아 등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말하고 있다.

인류가 격고 있는 고통은 어떤 시대보다 참담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다섯 살 미만의 어린이가 해마다 천만 명 이상이 죽어간다. 그들 중에 50%는 가장 가난한 나라 6개국에서 발생하고, 희생자들의 90%는 남반구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원인은 단순하다. 영양결핍과 여러 전염병, 오염된 식수 등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이들은 죽도록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와 커피를 따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강력한 부채로 지배를 한다.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조금만 늦춰준다면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과 거대은행들은 말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한다. 정말 그럴까?

전 세계의 6~15세 아동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해당 국가들은 10년 동안 총 7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액수는 미국인들이 해마다 화장품을 사기 위해 지출하는 액수 총액에도 못 미친다. 이 액수는 또한 유럽인들이(2004년 5월 1일 이전에 유럽연합 회원국이었던 15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해마다 아이스크림을 사는 데 쓰는 돈보다 적은 액수다. (95쪽)

이렇게 작은 돈이 부족해서 그들은 지금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기아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 국가의 어린이들은 지금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 또한 브라질 어느 마을 어머니들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기다리면 밥이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돌을 끓인다고 한다.

책을 덮는 순간에 부끄러웠다. 그리고 여전히 불편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생환습관들이 나를 얹매고 있다. 지구는 누구의 것일까?

선진국이라 불리는 많은 서방국가 대부분 국민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성서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는 진정한 가난한 자들인가.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덜 쓰는 것이 진정한 가난한 자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할 지위를 얻지 못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부자다. 탁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포기 하지 않고 있다.

피아노 치는 여자

엘프리데 엘리네크 지음

김영애 | 책향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일부러 난해하게 쓴 소설,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주는 역겨움, 자전적 소설이라는 해석이 달린 작품이다.

남편을 정신병원에 넣어버린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딸 에리카를 자신이 생각하는 틀 속에 가두는 일이다. 서른 살이 넘은 에리카는 사회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어엿한 성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의 어린 딸이고,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어머니의 꿈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고 그녀는 피아노 학원의 교사가 되었다. 여전히 어머니는 감시와 억압을 일삼고, 에리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녀의 오랜 습관 때문일까 에리카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고 또 깨어난다. 자신은 자신의 소유여야 한다. 하지만 에리카는 어머니

의 소유가 되어 친구조차 사귄 수 없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나중에로 미뤄 왔다. 그것은 어쩌면 그 어머니의 신조인 것이다. 새 옷을 사 입는 일은 금방 유행이 지나버릴 일에 걸레 쫓가리를 사들인다고 한다. 더 큰 돈을 모아서 새 아파트를 장만해야하고 나중에 얻을 행복을 위해서, 나중에 즐기기 위해서, 사소하게 얻은 기쁨 따위는 차버렸다. 어머니는 무엇이든 나중에 하려 한다. 단지 어머니는 에리카만은 늘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꿇임없이 자신을 억눌렀던 것들은 증오심으로 가슴 속에 박혔다. 어머니의 무참한 권력에 눌려 있던 에리카 역시 피아노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다. 남학생들이 음란서적을 뒤적거리는 현장을 급습해서 그들을 처벌한다.

“오스트리아 학원 선생들은 학생을 방과 후에도 처벌하다니…….”

제자였던 공대생 클레머에게 에리카는 사랑의 감정이 생겼다. 어느 정도의 애인의 위치(?)에서 에리카를 사랑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녀가 선택한 사랑은 한 통의 편지로 이루어진다. 편지에는 자신의 육체를 확대하고 결박하고 고통 주라고 썼다. 자신을 전기줄로 묶고 피가 나도록 채찍질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모든 사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중성과 분열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에리카는 자신이 크레머의 악기이길 바랬다.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르쳐 주고 싶어 했다.

“당신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요구해도 되겠어요?”

언젠가 에리카의 사랑을 시험해 보려했던 질문이 클레머에게 돌아온 것이다.

어느 날 에리카를 찾아가던 크레머는 편지에 쓰인 대로 성적으로 확대하고 폭행하고 그녀를 결박했다. 상처투성이던 그녀의 온몸에 정성스럽게 반창고

와 붕대를 감아준 것은 어머니다. 그녀를 평생 결박했던 것과 성불구자로 만들었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에리카는 비극적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무엇일까?

나는 한때 누구의 악기이길 바랬을까. 또한 한때 누군가를 결박하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잘못된 사랑, 어긋난 사랑을 받고 자란 에리카가 줄 수 있었던 사랑은 이렇듯 철저히 변태적인 사랑뿐이었을까.

언젠가

기억에서

푸른 바다 ● 엄민지

시험 걱정 ● 정은비

고마운 마음은…… ● 김윤재

우리 동생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 박효정

손 씻기 ● 이지오

새싹 ● 유승원

병 ● 최영두

부채 ● 박영채

소중한 친구 ● 이지현

우리집 흰둥이 ● 김동연

내동생과 날씨의 대화 ● 오지승

샤워한 낙엽 ● 이지은



학생 작품



푸른 바다

엄민지 호동초등학교

가족들과 함께 간
푸른 바다…….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보일 정도로
맑고 푸른 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맑고 푸른 바다가
점점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파란색 도화지에
검은 크레파스로 바탕을 칠하듯이…….

푸른 바다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들도
이제는 아파하고 있다.

이게 모두 다
우리 사람들의
잘못이다.

혹시 나도
바다와 물고기를
죽인 것은 아닐까……?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맑은 바다가
너무나도 보고 싶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낮에는
세상을 비추는 해처럼
환하게 빛이 나고

노을이 질 때에는
노을의 빛처럼
금빛같이 물드는
그 바다를…….

시험 걱정

정은비 | 호동초등학교

철수는 오늘도
시험 걱정을 합니다.
다음 주면 시험인데
놀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시험이란 자물쇠에
묶인 철수
그런 철수를 보는 엄마는
철수 걱정을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김운제 | 청룡초등학교

고마운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되나봐.

쑥스러워서
표현도 못하고
괜히 미안해진다.

고마운 마음은
답답한 마음이 되나봐

표현도 못하고
미안해지니
내 가슴은 답답하네.

고마운 마음이란.....

우리 동생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박효정 | 솔빛초등학교

우리 동생 어린이집 다녀오면
어린이집이 다 따라와요.

이건 과학시간에 배운 실험도구
이건 국어시간에 배운 받아쓰기 공책
이건 우리 동생이 배운 지식

우리 동생 어린이집 다녀오면
어린이집이 다 따라와요.
맨 나중에는 잘 가라고 손짓하시는
선생님 모습이 따라와요.

손 씻기

이지오 | 효자초등학교

물장군 손 씻어라
비누장군 비누 묻혀라
물 장군 비누 씻어라
세균아 물리가라

새싹

유승원 | 발곡초등학교

봄에는 푸른 새싹이 파릇파릇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
봄비가 마른 땅을 적해주면
새싹은 더욱 파릇파릇
햇빛이 햇살을 보내면
새싹은 쑥쑥 커요,
그동안 답답했는데
시원하다고 맑은 공기 마셔요.

영

최영두 | 호동초등학교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
그중에서도
특히 생명도 위협하는 병

우리들도 발전하면
병들도 발전한다.
새로운 병이나 바이러스로
끝없이 죽고 있는 생명

그에 맞서고 있는
우리 인간들
뉴스에서 속닥이면
두려움에 감싸인다.

그래도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다.
병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부채

박영채

부채를 부치면 시원하다.
전기도 절약한다.
사랑하는 친구같다.
기쁘다.
왜냐하면 전기도 절약하고 부치기만 하면 된다.
편하다.
모양도 많다.
꼭 동생같이 귀엽다.

소중한 친구

이지현

나에게는 여러 친구가 있다.

개구쟁이 친구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

싫은 친구

그런데 나에게는 전부 소중한 친구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소중한 친구

우리집 흰둥이

김동연

흰둥이가 자꾸 흰둥이 집에서 나온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놨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봄이 되면은 봄나들이를 시켜줄거다.

내동생과 날씨의 대화

오지승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

“어 바람이 썩썩 불잖아”

“어 이상하다? 이번에는 해가 쨍쨍하네”

동생이 날씨와 이야기 하는 동안

달님이 잠잘 시간이라고 말하며 방긋 웃네

내동생은 날씨다.

샤워할 낙엽

이지은 | 버들개초등학교

비 내리는 날 아침
낙엽은 샤워를 한다.
빗물을 타고 낙엽은 빙글빙글 돈다.

춤을 추는 낙엽
샤워해서 즐겁겠다.

어젠가

기억에서

환경 보고서 '공기' ● 김맹수

응급실 ● 박다예

똑똑한 아이 ● 정재원

신나는 여행 ● 임태희



학생 작품

산문

환경보고서 ‘공기’

김맹수 | 호동초등학교

사람들이 더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산업이 크게 발달하다보니 환경오염도 늘어나고 있다. 먼 거리를 갈 때 아주 유용한 자동차나 해외에 갈 때 타는 비행기, 더운 여름 집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 단 몇 분에 음식물을 손쉽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등 이런것들 모두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 이중 몇몇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얇은 막인 오존층을 파괴시키기도 한다.

만약, 사람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눈의 시력이 나빠지고, 피부도 빨리 노화가 되고,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다. 또,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있다. 지

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낮은 곳에 위치한 나라들은 침몰할 수도 있다.

투발로나 아름다운 섬 몰디브가 그 예이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매연은 공중에 떠다니다가 비가 내릴 때 같이 내려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 이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의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죽는다. 꽃잎은 잎의 색소가 녹아버린다. 또, 심하면 피부병이 걸리고, 탈모가 되고, 옷의 색이 빠진다. 산성비는 그 자체가 강한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식물 뿐 아니라 문화유산이나 귀중품들도 부식시킨다. 스핑크스,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이 그 예이다. 그리고 호수나 강의 물고기의 알들을 녹여버려 물고기가 번식을 하는 데에 크나큰 지장을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죄 없는 생물들을 죽이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마저 병들게 되지 않았는지…….

인도 보팔에서 일어난 방사능 유출 사고는 보팔의 시장이 돈에 눈이 멀어서 생긴 사고이다. 공장을 세울 때 오염 물질을 잘 걸러내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이었다. 방사능에 노출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다. 우선 사람에게 노출 되면 임신을 못하게 된다. 설사 운 좋게 아기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없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식물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를 예로 들면, 보통의 옥수수보다 알갱이 크기가 작고 마치 탄 옥수수처럼 보인다. 이렇듯 생물에게 방사능은 아주 해로운 존재이다.

공기는 정말 소중한다. 만약, 이 세상에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영하 18도 까지 내려가게 되고, 모든 생물을 죽일 만큼 강력한

해로운 자외선이 지구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사람이 살 수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고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응글썬

박다예

일요일 아침, 벽면에 붙어 있는 스피커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지겨운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난 고개를 들어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며 사악한 천사 같은 하얀색 스피커를 올려다보았다. 저 돌출된 초록색과 빨간색이 영킨 전선을 끊어내고 싶었다.

4명에서 욕실 하나를 써야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난 재빨리 수건을 휘어잡고 화장실로 돌진하여 문을 잠갔다. 순간 참을 수 없는 현기증이 내 머리를 감싸왔다. 할 수 없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는 침대로 내 몸을 던졌다. 씻으려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내 머리를 누군가가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두통이 느껴졌고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급기야 퇴실할 시간에도 씻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더니 사감 선생님이 오셨다. 1시간 정도 누워있었더니 옆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와

나는 곧장 시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향했다.

“여기 접수했는데 어디에서 기다리면 되죠?”

“네, 선생님은 곧 오실 거니까 거기 제일 끝에 침대보이시죠? 거기 환자는 누워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누가 영업사원 아니랄까봐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오는 엄마의 가식적인 목소리에 다시 현기증을 느끼며 침대로 가 누웠다. 곧 의사가 와서 내 머리를 짚어 보더니 점심을 먹으러 가는가 싶다. 아직도 손으로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 병원의 방식에 실망하며 눈을 감았다. 간호사가 온다.

“저기요, 딸 에 영양제 좀 놓아주실래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가 대답을 하고는 영양제 한 병과 식염수 한 팩을 가져온다.

“손 좀 꼭 쥐어 볼래요?”

힘이 없어서 그냥 주먹을 잡는 정도로 힘을 주었더니 그 때문에 혈관을 못 찾겠다는 듯이 더 꼭 쥐어 보라고 한다. 일부러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쥐어 보았더니 그래도 못 찾았는지 내 팔목을 이리저리 눌러보며 머쓱해한다. 드디어 혈관을 찾았다는 듯이 한 곳을 꺾꺾 누른다.

“따끔 할 거예요. 많이 빠르하세요?”

“저기요, 해열제도 링거로 들어가나요?”

“해열제는 엉덩이로 들어가요.”

간호사는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느냐는 듯이 싱겁게 대답하고는 커튼을 치고 내 바지를 살짝 내린다. 그러고는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내서 엉덩이를 몇 번 치는 것도 없이 주사기를 쿡 찔러 놓더니 웃으면서 숨을 대어준다.

"문지르세요. 그리고 영양제 다 맞으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숨 자요."

이렇게 한 마디 남기고 커튼 뒤로 사라진다. 한 30분 정도 영양제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두통이 밀려온다. 링거의 약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엄마도 지루했는지 잠시 앞에 있는 마트에 갔다 온다며 커튼 뒤로 사라진다. 영양제라서 거의 3시간은 맞아야 한다는데 아침 10시까지 잔테다가 누워만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까닭에 도무지 잠을 잘 수도 없다. 한동안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응급실 안으로 침대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 분, 맥이 안 잡히는데? 맥이 안 잡혀!"

"할아버지, 사고 어떻게 나셨어요? 네? 주민번호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으흐흑……."

"할아버지! 의사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진정하시고 저쪽에 앉아게세요."

"여보, 일어나봐! 아이고……, 내 마누라야!"

"진정하시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부산하게 의료기기들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 의사가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주사기와 거즈를 가져오라 한다. 정체 모를 기계들이 켜지는 소리가 들린다.

'쿵덕 쿵덕, 쉬이 쉬이, 쿵덕 쿵덕…….'

그 때 새파랗게 질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 아버님! 으흐흑……."

커튼 뒤에서 황급히 달려온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로 봐서 짐작컨대 아마 며느리인 듯하다. 그 여자는 아무 소

리도 하지 않고, 조용한 흐느낌으로 응급실을 울리고 있다.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형식적이고 포장된 흐느낌이 아니다. 진실함이 내 심장을 파고들어 웬지 모를 쓰라림을 안긴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에 정정한 노인과 그를 시어머니로 받드는 온순한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마도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과 여자의 사이가 좋았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미소를 띠고 있는데 누군가 커튼 안으로 들어온다. 엄마다. 한 손에는 과자 몇 봉지와 음료수를, 다른 손에는 날 먹이려고 사왔는지 죽을 포장한 봉투가 눈에 띈다.

엄마가 들어옴과 동시에 사람들이 우수수 들어오는 소리가 난다. 사고당한 할머니의 가족들인지 들어오자마자 제각기 설움에 겨워 우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좀 일어나 보세요! 이리저 마세요! 평소에 정정하셨던 분이. 흐흑…….”

“내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니 엄마 어찌냐? 으흑흑…….”

“왜 멀쩡하신 양반 끌고 나가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놔요?”

엄마는 응급실에 올려 퍼지는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짐을 힘겹게 침대 시트 위에 올려놓고는 죽의 포장을 푼다. 죽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과 함께 거의 몽그러진 듯한 쌀알들이 보인다. 엄마는 기운이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죽을 한 수저를 떠서 내 입에 댄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밀려왔지만, 난 아무런 말없이 죽을 삼킨다.

“교통사고 났나보네. 심하면 큰 병원으로 가지 왜 여기 왔대?”

엄마는 씹쓸한 한 마디를 남기고는 다시 내 입에 죽을 밀어 넣는다. 갑자기 누군가가 커튼을 휘리릭 걷어 젖힌다. 머리에 피가 흥건한 어떤 할아버지가 엄마와 나를 응시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커튼 뒤의 그 당사자인가, 자신의 아내 때문에 울고 있던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응급실에 온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순간, 침대 위에 놓아져 있던 날 소생시킬 죽 한 그릇과 내 몸 안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 낼 영양제 한 병이 무색해진다. 그 할아버지는 커튼을 뜯어낼 듯이 다시 닫는다. 엄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죽을 다시 권한다.

“먹어, 엄마가 사 왔잖아.”

“엄마, 나 역겨워서 못 먹겠어.”

“아이고,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요.”

순간 끝까지 손을 내저으며 못 먹겠다고 한 내 대답에서 미안함이 묻어나온다. 그 감정은 엄마에 대한 것인가? 그 할아버지에 대한 것인가? 난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하지만 자꾸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의 눈에 엄마와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엄마는 남은 죽을 챙겨들고는 약 받아 온다며 내 시야에서 사라진다. 간간히 들리는 대화 소리와 흐느낌을 제외하면 무엇인지 모를 기계음만이 응급실의 적막을 깨고 있다.

‘쿵덕 쿵덕 쿵덕, 뻘이 뻘이 뻘이이이. 쿵덕 쉬이 쿵덕 쿵덕 쿵덕…….’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인지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것인지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저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난다. 갑자기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아아악! 안 돼! 어머니, 안 돼요!”

“안 돼! 말도 안 돼! 조금만 더 해봐. 저거 봐,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아직 따뜻하잖아요! 아직 따뜻한데……, 으흐흑…….”

그 환자의 침대가 바로 옆칸에 있는지 울부짖음이 생생하게 내 고막을 찌른다. 좀 전까지 들렸던 그 기계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난 온통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서 잠시 혼란스러워진다. 열 때문에 저만치 치워두었던 이불을 힘겹게 끌어올려 내 몸을 감싼다. 그 때 간호사가 들어온다.

“이제 주삿바늘 빼 줄게요. 많이 시끄럽죠?”

내가 굳은 얼굴로 올려보았더니 간호사는 웃으면서 링거를 가지고 사라진다.

또 한 번의 울부짖음이 내 살갓에 부딪힌다. 아마 어떤이가 아직 따뜻하지만 영혼이 날아간 육신 위에 시트를 씌웠겠지.

커튼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엄마다. 약을 다 받았으니 어서 학교로 가자고 한다. 커튼을 열고 나오니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나를 주시한다. 엄마는 내 어깨를 꼭 끌어안고 출입문으로 빠르게 걷는다.

밖으로 나와 겨우 숨을 내몰아쉬며 뒤 돌아보니, 박차고 나온 유리문만이 쓸쓸히 흔들린다.

똑똑한 아이

절재원 | 호동초등학교

승재는 4살 정도 되는데요, 승재는 4살인데도 설거지도 하고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열심히 하더군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엄마는 확실하다고……. 했죠, 엄마는 기분이 좋았어요.

승재가 커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어도 전교 1등은 놓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했죠. 엄마는 정말 우리 승재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거라고 생각했어요.

승재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전교 1등은 물론 전교 회장과 반장까지 했어요. 엄마는 정말 정말 승재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승재는 2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이승재 학생 집 맞나요?”

“네”

“이승재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엄마는 너무 기뻐서 날아 갈 뻔 했어요. 승재도 꼭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었나 봐요. 승재도 좋아하더군요.

승재는 대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몇 년 뒤 승재는 의사가 되었어요. 엄마도 기분이 좋았어요. 승재는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예요. 간호사들도 능력 있고 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최고 의사 승재 때문에 소문이 퍼진 승재병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승재는 힘들어 했어요. 예약손님도 많지만 승재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죠. 승재는 힘들지만 힘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여러분들도 승재처럼 훌륭한 사람 되세요.

신나는 여행

임태희 | 호동초등학교

작년에 갔던 가족여행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아빠께서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가족들은 아빠의 말 한마디에 오랜만에 가는 가족여행이기에 그만큼 들떠 있었다.

차를 타고 여행지로 향하는 길은 재미있었다. 여행지에 도착해보니 펜션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내가 본 펜션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펜션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빠 친구분들이 가족과 함께 오고 계셨다.

모두가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로 다음 여행지로 출발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바다로 향했다. 바닷가에 도착해보니 드넓은 갯벌이 보인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고 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빠 친구의 딸이 다쳐서 울고 있었다. 그걸 보니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히 놀았다.

조개를 잡고 바다 근처의 다리를 건너갔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빨간 등대가 보이는 곳으로 갔다. 등대를 가까이서보니 엄청 높고 위대해보이고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모든 가족들이 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 몰랐었는데 모두가 모이니 정말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 펜션에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점심 메뉴는 김밥이었다. 점심을 기대했었는데 김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입이 짹 벌어졌다. 점심을 먹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들은 2층에서 놀았다. 나는 언니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곤 했다. 꼬마 애들은 어린이답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내려갔다. 저녁메뉴는 삼겹살!! 삼겹살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정원에서 뛰어놀면서 먹고 놀고를 반복했다.

저녁을 먹고 언니들하고 동생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했다. 언니 한 명이 장롱속에 숨어있었는데 언니만 장롱속에 숨은 게 아니었다. 다른 동생 한 명이 선반 아래에 숨어 있었고, 그 위에 언니가 숨었는데 선반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그 바람에 동생이 다쳤지만 다행히도 눈을 피해서 다쳐 다행이었다. 그 사고로 어른들 모두 놀랐지만 우리들도 많이 놀랐다. 웬지 모르게 동생한테 미안했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깨자 다시 시끌벅적 해졌다. 우리는 아침으로 라면을 먹었다. 아침을 먹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집으로 돌아 갈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펜션 주위에 서서 가족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에는 단체사진도 찍었다. 차를 타고 가며 여기저기 구경을 했다. 차안에서 보이는 바깥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계속 구경을 하다 보니 뱃속에선 밥을 달라며 소리를 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아빠 친구들 가족들이 함께 찻집으로 들어갔다. 찻집에서 맛있게 회를 먹고 동생들과 언니들과 재미있게 놀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놀다보니 어느새 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제 헤어진다 생각하니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절로 입가엔 미소가 지어졌다.

오랜만에 아빠 친구의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서 나에겐 정말 뜻 깊은 여행이었고, 지금도 그 때의 추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언젠가

기억에서

시 • 최우수상 • 옛 그리움 • 김순희

시 • 우수상 • 그리움 • 민경숙

시 • 장려상 • 그리움 • 이복순

수필 • 최우수상 • 종점 • 이부영

수필 • 우수상 • 권 양반 • 김창숙

수필 • 장려상 • 어머니 인생의 종점 • 노은정

이주여성백일장 • 최우수상 • 모정 • 기타다 모모꼬

이주여성백일장 • 우수상 • 엄마 소망 • 쿠엔티 킴 티엔

이주여성백일장 • 장려상 • 그리움 • 사사끼 에이코



2009년 의정부시 여성기예경진대회

수상작품

옛 그리움

김순희 | 의정부2동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여울목에서
 신록의 푸르름이 가슴 벅차게 안겨오던 날
 우유빛 안개와 풀끝이슬
 햇살의 애무로 사라질 때
 바람과 나뭇잎의 입맞춤 소리에

포록 포록 날며 들며
 수다쟁이 참새들의 아우성소리 들려
 고개 들어 바라보니
 오래전 옛 그리움
 꽃처럼 거기 서 있었다.

마법의 주문으로 돌아선 시간의 기억
 밑밭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풀내음처럼
 색이바랜 흑백사진처럼
 한무늬 하나의 조각으로 매듭 엮어졌던 사십여년의 세월

그리움은 마음의 바램
 추억은 심중의 생각
 행복은 기억나는 이 모든 것이지.

그리움

민경숙 | 녹양동

비오는 한계령
 차안에는 '못다한 사랑'이 흐른다
 나뭇잎들은 빗방울을 뚝뚝 떨구고
 굽이굽이 넘어가는 길이
 내님 찾아가는 길처럼 멀기만 하다.
 빗방울 소리에 맞춰
 휴대폰 버튼을 하나씩 누른다.
 버튼마다 번지는 초록빛 그리움.
 휴대폰 창에 매달려
 문자가 온다.
 보.
 고.
 싶.
 다.

그리움

이복순 | 호원2동

회색 물비늘을
일으키며 연못위를
구르는 미풍
눈들어 하늘을 보라
흐릿한 기억의 어머니
그이름 점점 가까이
들러오네.

이부영 | 신곡2동

하늘을 제일 가깝게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나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만 서면 버튼을 누
름과 동시에 초입기를 하듯 마음은 23층 꼭대기에 먼저 올라가 있곤 한다.

기계음이 작동되는 순간부터, 매일 마주치는 미화원 아주머니의 부지런함도
묻어있고 너무 맑아 쳐다보기조차 미안한 22층의 어린 자매의 눈빛도 어려
있는 엘리베이터 벽의 거울은 잠깐 동안의 억류에서 유일하게 시선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이다. 더구나 약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낯선 사람과 둘만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도 허락지 않는 요즈
음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날도 엘리베이터에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9층에 사시는 연로
하신 어르신께서 가슴에 무엇인가를 소중히 안고 나타나셨다. 무표정한 얼굴

에 힘에 겨운 듯한 발걸음이 평소에도 괜히 신경 쓰이곤 했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시선 때문에 당황하다가 어느 날 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곤 했었고 뵈는 때마다 생소한 얼굴을 보듯 답례해 주시곤 해서 안타깝기도 했었다.

그날따라 한손으로 지팡이를, 한 손으로 품고 계신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무엇보다도 그토록 소중히 갖고 계신 것이 궁금해져서 눈길도 그 곳으로 쫓아갔다. 순간 !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곤 가슴이 '쨍' 하며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그것은 평소의 할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인 할아버지의 사진, 영정사진이었다. 그분의 '삶' 바로 뒷장에 붙어있는 '죽음'을 미리 잘 손질하여 액자에 소중히 담아온 종점티켓…….

평소에 힘들고 지친 모습의 할아버지가 아닌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당당히 그 종점 티켓을 들고 계셨다. 지나간 삶을 오히려 여유롭게 만들며 마지막인 내일이 단순한 내일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할아버지. 9층에서 내리시는 할아버지께 그날은 잘 들어가시라는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 그 강렬한 종점티켓 탓에…….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마지막은 의도되는 오류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다. 출발점과 종점의 명확한 경계선을 잊고 허둥거리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한 없이 편안해 보이는 그분의 모습과 겹치며 깊은 상념에 잠기게 한다.

살아가며 까치발을 하고 호기심 가득 내일이 궁금해 내려다보던 유년의 시절에도 그랬고, 계절의 경계선 어딘가에선 늘 아름다운 향기만 뿜어올 줄 알았던 미혼의 시절에도 그랬듯이 오십의 이즈음에도 여전했었다.

준비하지 않은 마지막의 미학에 심취하도록 여유를 주신 그분이 오늘따라 멋져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쪼록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셔서 그 종점 티켓을 사용할 날이 아직도 멀었으면 좋겠다. 만남은 이별을 준비한다고 했듯이 우리에게 종점은 늘 준비 되어야할 이유인 것 같다.

진 양반

김창숙 | 녹양동

“딩동댕”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우린 바쁘게 움직인다. 49번 (망우리) 종점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간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버스에 앉을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 달려간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버스를 먼저 타기 위한 달음질이다.

하지만 그 시간은 즐겁다. 그 버스를 타면 집에 갈 수 있기에 우리의 육신이 편히 쉴 곳이 있기에 우리를 가족이라는 끝으로 묶어준 집과 식구가 있기에 우린 주저없이 그 버스에서 내릴 수 있다.

“따르릉”

새벽에 울리는 전화 벨 소리 직감적으로 ‘엄마군’ 하고 느낀다. 시간개념 없이 당신이 일어나는 시간은 모두 일어나는 줄 안다.

“왜 그래”

하는 나의 질문에

“엄마 죽는다.”

하고 외친다. 죽긴 누가 죽냐며 통명스럽게 한마디 한다. 늘 아프기만 하기에 또 그런가 보다 하며 무심히 넘긴다. 낮에 병원에 같이 가기로 하면서 난 짜증이 밀려온다. 오늘 할 일도 많은데… 하면서 내 걱정부터 한다.

폐암 말기란다. 아! 누구나 인생의 종점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나에게 그 준비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큰 일이 다가온 것이다. 인생이라는 버스의 종점에서 미처 내릴 준비가 안 되었던 엄마는 많은 혼란과 불안속에서 그리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았다.

우리에게 2명의 죽음을 동시에 맞이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 혼하지 않은 불행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버스 속에 같이 승차 하였다. 19세의 어린 생명이 먼저 육신의 버스에서 내려 하나님께 갔다. 1주일 후에 73세의 할머니도 종점에 내렸다. 어린생명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당신의 죽음이 더 싫었던 엄마. 자신이 거하는 것이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권 양반”

하고 우릴 부른다. 뇌로 전이된 암세포로 인하여 치매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탓도 있지만 그 무의식 속에는 한 번도 내 것이 없었던 탓 일 것이다.

내 방도, 내 집도, 하물며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던 엄마에게 자식들도 남편이 아닌 타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인생의 버스는 늘 제대로 탑승하지 못하고 겨우 문고리에 매달려 가는 형상이었기에 목표 없는 노선이기에 내릴 곳, 그 인생버스의 종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언제나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에도 반드시 종점이 있다. 애써 외면하고 달려가도 우리 인생의 종점…….

우린 내리기 싫어도 그 종점에서 하차해야 한다. 그 곳에 내려서 영원한 내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육신의 종점에서 작별을 고해야 한다. 그 노선의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때가 되면 내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인생의 버스는 출발점

부터 내가 주인인 것이다. 신호등과 대로 또는 좁은길 도로 안내판의 도움속에서 우린 스스로 갈 곳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기를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다.

“천 양반”

하고 우리를 부르며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해결해 주길 원했던 엄마처럼 우리도

“천 양반”

하면서 주인을 찾고 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때로는 확신하면서 우린 신을 찾는다.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앞으로 하면서도 그 속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쉽게

“믿음 부족이야”

하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럽다.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은 승객이 되기 위해 봉사하고 다닌다. 이 곳 저 곳을 기웃거리며 자신을 포장한다.

즐거움으로 학창시절의 그 종점처럼 인생의 목표가 화려한줄 알고 뛰었던 그 젊은 날의 열정이 어느 날부터 한숨과 후회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락스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얼룩들도 결국은 내 삶의 일부요, 나의 인생버스의 내부 장식이요, 버스를 채우는 또 다른 생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이끌고 가야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정거장이 지나온 정거장보다 많지 않다. 그대로 정류장을 지나쳐 버리는 일 없이 매 정류장마다 정확하게 세워 그 곳에 있는 인생을 실어서 버스를 꽉 채워야 하는데…….

그 바램이 내 종점에 다가올 때 더 이상 지우고 싶은 얼룩이 없는 나의 버스의 내부가 되었으면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내릴 준비를 하는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

어머님 인생의 종점

노은정 | 호원동

세상에 태어나 마지막의 종점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마지막 종점이 있듯이 나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겠지요.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난 오늘 나의 어머님이 살아오시며 마지막 종점을 맞이하신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힘들지만 힘들다 말 못하시던 어머님. 그분의 마지막 종점…….

내가 남편을 만나 처음으로 만나게 된 어머님. 늘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던 어머님은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늘 자식들 걱정 뿐이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밤마다 고통속에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아프셔도 아프다고 말씀을 못하신 어머님…….

자식들이 시골집에 온다고 하면 아침부터 큰 길가까지 나오셔서 우리들을 기다리시곤 하셨습니다. 또 자식들을 위해서 그 아프신 몸을 이끌고 품앗이

를 하시러 다니셨죠. 그래서 양파, 마늘 등을 구입하고 잘 손질해서 자식들이 내려오면 한 집, 한 집 챙겨주시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전라남도 한 섬에서 태어나셔서 섬 안에서 아버님을 만나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늘 함께 다니셔서 그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서 시골생활을 하시려니 아버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셨지요. 남편은 부모님의 그리움으로 가끔 혼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전 그런 남편을 위로 하지요.

우리 어머니는 섬에서 일하시다가 파상풍으로 세상의 마지막 점을 찍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통 받다가 세상의 마지막 점을 찍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종점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가신 어머니 늘 저의 손을 꼭 잡고

"에미야, 고생이 많데이. 그리고 고맙데이."

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가 고맙고 좋았습니다. 저는 별로 어머니께 해드린 것도 없고 표현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를 누구보다 예뻐해 주셨지요. 또 우리 두 딸도 예뻐해 주시고, 다른 형제들 모르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챙겨놓은 만원권 지폐 몇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쥐어 주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그런 사랑에 우리는 보답도 못해드렸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그러시겠지만 전 어머니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의 그런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회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한 어머니로서 나의 아이들에게 희생하며 자식이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의 마지막 종점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모정

기타다 모모꼬 | 기능1동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될 때
저는 남편하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다니
던 대학교가 가까워서 학생 때 가끔 친구들과하고 바람 쐬러 갔었답니다.

그 날은 벌써 해가 저서 등불이 커져 있었습니다. 한참 올라가자 절이 보였
습니다. 거기서는 밥을 하기 위한 프로판가스통을 하늘에 줄을 매달아서 올
리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생활의 추억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
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큰 가스통의 줄이 풀어지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
니다. 두 번 땅을 치더니 계단에 서 있는 제 허벅지를 쿵 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그 후의 기억은 남편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를 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이 걱정하시고 기다리신다고 다음 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날부터 어머님께서 간호를 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니 며느리로서는 몸도 불편하지만 마음이 더욱 더 죄송하고 불편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집와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도 처음 며칠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제 입에 밥도 떠서 먹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회복도 빨랐습니다.

다 회복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게도 시험이었어. 배가 안 아프고 낳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단다.”

였습니다. 평소에 저를 배가 안 아프면서 얻은 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까지 털어 놓으시는 어머님을 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생각할수록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의 자존심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시려는 어머님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남매의 엄마가 됐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어머님처럼 멋진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영랑 소망

쿠엔티 김 티엔 | 신곡2동

집 앞 빈 땅에
상추를 심었다.
비가 오지 않아
영영 짝이 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 파란 잎이 나왔다.

나도 배가 아팠다.
아기를 낳았다.
너무도 예쁜 딸
꼬물꼬물 움직이는 손가락이
어린 새싹을 닮았다.

아침 저녁 밭에 가서
풀을 뽑고 물을 주었다.
상추가 내 손바닥만 해졌다.

우리 아기도 저렇게 쑥쑥 자라면 좋겠다.

내년에는 베트남 노고(ngo)를 심어야겠다.

※ ngo: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야채

그리움

사사끼 에이코 | 녹양동

저는 한국에 산지 15년 됐습니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한국말은 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지 쓰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저희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5세였습니다. 직접 모시지는 않았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습니다. 집안 제일 어른이셨기 때문에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서 저도 자기 삶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남편은 삼형제의 막내입니다. 결혼을 해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후 이주버님이 재혼하시고 아이들이 태어나 11명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14평의 집에서 11명이 살았습니다. 조금 좁았습니다. 그래도 방이 3개 있어서 한 가족당 방 한 개씩 사용했습니다. 네 식구가 누우면 머리부터 발까지 딱 맞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 받았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개성이 강하다보니 트러블도 많았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아주버님께서 약주를 하시면 기본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은 일 때문에 집에 없고 집안 일 보다 바깥 일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서운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이야 어쨌든 사람이 많다보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9년이 지나서 저희 식구는 의정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하니까 수술을 받고 치료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15년간 여러가지 일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넘겨 왔습니다. 지금 97세 되시는 시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도서관의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은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고요.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아이들이 꿈을 이루게 해주고 남편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기억에서

『1940년 열두 살 동규』●최인환

푸른 바다속 세계●구광희

혼자 떠난 제주에서의 1박 2일●정은

어린이 돼서 다시 읽은 '시튼의 야생동물 이야기'●조희경

여행의 의미●김윤선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영국●어성욱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장민영

'경청'이란 무엇일까?●김승지

교회의 적, 과학의 순교자 갈릴레오●정보도서관

종의 기원●정보도서관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이인혜

활자 중독자 1인의 회상●이해정

하성란의 『샷쫄로 여인숙』을 읽고●임애리

사서 인턴 후기●박혜선

나만의 독서노트를 채우자●이영미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전선미

사서 후기●이나영



도서관 식구



『1940년 열두 살 동규』

손연자 글, 계수나무, 2009.

서평 | 최인환



작지만 큰 독립운동가 '동규'

초등학교 미술시간이었다. 그날은 실기평가로 태극기를 그리는 날이다. 나는 빨강, 파랑, 검정크레파스에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기 위한 컴퍼스, 그리고 패를 반듯하게 그리기 위한 자를 준비했다.

일단 스케치북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니 그때부터 헛갈리기 시작했다.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거였던가? 왼쪽이 위로 올라가나?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는 물결무늬 모양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동그라미는 제쳐두고 패부터 그리기로 했다. 자로 세 줄로 모양을 그려놓고 이제 까만 크레파스로 패가 떨어진 부분만 색칠을 안 하면 그만이었다. 왼쪽 상단의 패와 오른쪽하단의 패를 완성했다.

나머지 패는 분명 내가 생각하는 모양 두 개 중 하나에 어느 것을 어디에 그려 넣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태극기를 그리는 것이 어려웠는지 여기저기 한숨이 터져 나왔고, 짓궂은 남자아이들 몇몇은

“난 일장기 그렸다! 히히”

하며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스케치북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신 선생님은

“너들이 일본사람이니?”

하시며 호되게 나무라신 생각이 난다.

책 속 주인공인 동규에게도 이런 미술시간이 있었나 보다. 그렇지만 동규는 태극기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국기를 그리라면 당연히 일장기를 그려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1940년에 열두 살이었던 동규는 식민통치가 뭔지 모른다. 동규는 자기 이름을 요시아마 도오규로 알고 매일같이 황국 신민 맹세를 하고 ‘텐노 헤이가 반자이!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아이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긴 어른들은 동규와 같은 아이들을 보며 이들의 뿌리를 알려주려 노력한다. 숯장수에게 우리의 전통무예인 태권을 배우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경험해 가며 동규는 몸과 마음으로 서서히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게 된다.

동규는 몇 십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오며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컸을 어린이 아님 어린이였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일들도 있었다. 일본 여자아이를 좋아할 수 있었고 늘 깨끗한 일본인 마을의 거리를 배우려고 했고 일본인 친구와도 우정을 쌓아 갔다. 동규는 그 일본인 친구를 통해 동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동경에 미술을 공부하러 간 줄만 알았던 동규의 아빠가 독립운동가이고, 그래서 동규의 집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동규에게 태권을 가르쳐 줬던 숯장수가 집에 찾아온 날 일본 형사들이 들이닥쳐 동규는 그 일본인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할머니의 죽음과 그 날 일로 끌려 들어갔다가 나온 할아버지의 건강악화로

동규네는 강원도로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할아버지를 잃고 경성에서 동해와 두만강을 거쳐 아버지가 있는 북간도 외딴집까지 가게 된다.

여정을 거치며 동규는 더욱 성장하고 독립군인 아버지가 떠난 후 암호를 해독하는 법을 배워 연락병이 되어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던 중 동규는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을 만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순간 동규를 구한 것은 일본아이였다.

위기의 순간에 동규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일본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조선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작가는 독자들에게 ‘일본사람 나쁜사람, 조선사람 착한사람’ 식의 흑백논리에 갇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작품을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작가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이야기하지만 동규의 의식과 시선의 흐름을 따라 서술하고 있어 마치 동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 때문에 암울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지 않게 편안히 읽을 수 있었고 상황들을 좀 더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작가는 말한다.

“괴로운 과거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덮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돌아보고 반성하며 앞날을 내다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아픈 과거를 외면하기 보다는 선조들의 노력으로 얻게 된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사실적인 작품을 통해 그 시절을 만나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푸른 바다속 세계

구광희 | (khkoo@korea.kr)

3면이 바다로 휘둘러 있는

천혜의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바다는 동해가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길으로만 보이는 바다는 푸르른 물결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로 연상되곤 하였다. 하지만 막상 내가 직접 바다 속을 탐험하게 됐을 때 지상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고 신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바다가 좋아 잠수를 배우고 처음 입수했을 때는 긴장도 됐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바람에 제대로 바다 속을 유영하지 못하고 끝마쳤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차츰 익숙해지며 호흡이 길어질수록 바다 속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서해와 남해에 비해 동해는 조류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한된 공기량에 비해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바다 속은 어느 태평양의 바다 속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나름 우리나라의 바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름도 모르는 바다생물과 식물이 지상세계의 동식물과 또다른 풍광의 멋을 자아낸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빛의 투과율도 적어지기 때문에 바다 속 풍경은 원래의 색깔을 감춘 채 점점 진한 푸른빛으로 변화한다. 칼라TV가 흑백TV로 바뀌는 순간이다. 하지만 깊은 잠수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보통 나와 같은 초·중급자들은 20미터 내외에서 잠수를 즐기기에 제 색깔의 바다 속 풍광을 볼 수 있다. 지상의 모래사장이 바다 속에 펼쳐져 있고 그 중에 덩그러니 바위 몇 개가 솟아있으며 나 자신이 바다 속을 유유히 떠다니고 있으면, 한 마리 새가 산위를 날아다니는 산수화가 생각날 때가 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보통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발이 지상에서 떨어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좀 더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공포증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무중력이 되면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본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속이 무중력을 느끼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된다. 우주비행사가 무중력을 체험하기 위해 잠수를 배우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런 이치 때문에 바다 속에서 잠수를 하면서 무중력이 되는 순간, 폭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바다 속 환경도 바다오염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어 버린다.

지구 온난화로 해파리 같은 아열대성 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어족 환경이 황폐화 되고 바위에 생물이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게 되는 백화현상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더구나 지상의 쓰레기를 바다 속에 무분별하게 투기함으로써 오염의 종합선물 세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잠수를 하면서도 바다 속에 방치된 폐그물에 걸려 죽은 물고기, 바위 곳곳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물도 살지 않는 장소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후손들에게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바다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늘어만 가는 환경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솔선수범하여 수중정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려 한다.

혼자 떠난 제주에서의 1박 2일

정 은



우리는 가끔씩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 역시 종종 그래왔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내지는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왔었다.

홀로 떠나는 여행은 처음 인지라 두려움이 더 내 앞을 가로 막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털고 핑계들은 뒤로 한 채 나는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혼자 가는 여행인지라 장소 선정이 중요했는데 나는 제주도를 선택했다. 전부터 계속 제주도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제주도는 여자 혼자 걸어서 여행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여행자들의 이야기들이 내 맘을 좀 달래주었다. 또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겨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주도로 갈 수 있었다.

나는 평일 할인 티켓으로 갈 때는 세금을 제외하고 33,000원에 구입했다.

숙소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면 저렴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멀지만 안전한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다. 1박 2일, 기간은 짧았지만 그토록 가고 싶던 제주도에 가게 돼서, 또 나 혼자 간다는 뿌듯함에 너무나 기뻐했다.

제주도는 볼거리가 정말 많지만 요즘 많이 알려진 올레투어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 쉬엄쉬엄 걸으며 나의 정신과 육체를 자연에 맡기고 정화하고 재충전하고 싶었다. 걷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무작정 앉아서 몇 시간이고 하늘만 보고 싶었다. 그러기엔 제주 올레길은 나에게 정말 안성맞춤이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 하늘도 내 편인 듯 날씨는 너무도 화창하고 따뜻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비행기에 사람이 별로 없어 창가 쪽에 혼자 앉아 갈 수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구름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듯 구름이 예쁘게 깔려 있었다.

얼마 후 곧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처음 제주도의 공기를 맛보았을 때 제주도의 공기는 따뜻하고 바다 때문에 약간 습한 그런 느낌이었다. 어떤 블로거가 세계 모든 나라의 공기를 병에 담아 그리울 때 마다 맡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지만 조금은 색다른 제주 공기. 내가 제주도에 왔음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서둘러 제주공항을 나와 100번 버스를 타고 제주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한다. 내가 묵을 게스트하우스는 6시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해가 지면 매우 어두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늦게 가면 침대방도 사람이 꽉 차 다락에서 자야한다. 나는 제주에 5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 숙소까지는 한 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숙소에 전화를 해 두었다.

해가 점점 사라지자 나는 제주의 어둠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어두웠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사람도 거의 다니질 않았다. 순간 무서웠다. 버스에서 어서 내 도착지 방송이 나오기를 초초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행히 숙소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었다. 역시나 늦게 도착한 나는 침대방이 꽉 차 다락에서 묵게 되었다. 게스트하우스의 분위기는 '따뜻함'이라

고 정의 할 수 있을까? 너도 나도 서로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

게스트하우스의 여행객 90%는 혼자 온 여행객들이었고 그중에서도 20대 여성들이 많았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 어디가 예쁜지 등등 많은 여행 정보들을 나누었다.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은 혼자 여행 왔지만 숙소에서 만큼은 외롭지 않고, 아침과 저녁을 맛있게 같이 먹을 수 있고, 일정이 같다면 동행할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점이다. 또 내가 묵은 숙소는 '오름투어'가 있었는데 내가 이 숙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

새벽 5시~6시에 제주의 오름을 보러 가는 일정인데 그날 그날 촌장님이(숙소 사장님을 촌장님이라 부른다.) 날씨를 보며 올라가면 예뻐만한 오름을 선정하신다. 단점이라면 개인적인 공간이 없고 개인행동에 제약은 없지만 어느정도 규율이 있다는 점이다.

개인 공간이 필요하거나 혼자 조용히 쉬고 싶다면 게스트하우스는 피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온 것이라면 하루쯤은 체험해 볼 만한 장소다. 제주엔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각 게스트하우스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가는 편이 좋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향이 좋은 허브차도 마시며 소외된 사람 없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곤 다음날 있을 오름 투어를 위해 일찍 잠에 든다.

새벽 5시 30분. 여기저기서 알람이 울린다. 평소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 내가 눈이 번쩍 떠진다. 잠자리가 바뀌어 잠을 폭 못 잤지만 오름 투어의 기대 때문일까 가뿐하게 일어났다.

오름은 큰 화산의 옆쪽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을 말하는데 제주엔 크고 작은 오름들이 많았다. 새벽의 오름을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제주도에 올 이유는 충분하다. 나는 그 중에서 다랑쉬 오름을 올라가게 되었다. 아래에서 보니 그리 만만치 않은 높이였다. 출발할 땐 어둑어둑 했는데 조금씩 동이 터 오고 있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일출은 아니지만 반대편 오름 위로 해가

뜨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꼭 바다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름 위로 해가 예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오름을 올라가는 내내 어느 한 곳도 예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여행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평소엔 길가에 있는 풀 한포기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
흥이 없던 것이 여행을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다시 보고, 다시 느끼
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나 보다.

설새없이 여기저기서 사진기를 꺼내든다. 아무리 찍어도 그 아름다움은 사
진기에 담기질 않는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지만 내 눈으로 찍어 내 가슴속
에 둔 사진 만큼 잘 찍힌 사진이 있을까?

다랑쉬 오름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며 보이는, 그리고 느껴지는 제주도의
모습은 각각 다르며, 또한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제주도의 모습과 느낌은 또
달랐다. 촌장님 말씀으론 오름은 새벽에 올라와야 좋다고 하셨다. 오후에 와
봐야 별 감흥이 없다고. 정말 그런지는 다음에 한 번 더 와봐야겠지만 아침
잠을 포기하고 올라온 오름은 촌장님 말씀에 믿음을 가게 할 정도로 아름다
웠고, 좋은 공기로 내 몸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오름 투어를 마치고 와서 먹는 아침밥은 꿀맛이었다. 역시나 운동을 하고
먹으니 더 맛있을 수 밖에. 아침 식사 설거지 당번은 숙소의 오랜 전통이라는
눈치게임으로 두 사람을 정했다. 숙소에 묶는 사람은 30여명 남짓인데 설거지
는 여기 촌장님 부인께서 혼자서 다 하신다. 그래서 조금 나눠서 설거지를 도
와드린다. 이것도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대충 정리가 되면 다들 떠날
준비를 한다. 하루 밤 만남이지만 그새 정이 들어서인지 헤어짐이 더디다.

나는 원래 올레 7코스를 걸을 생각이었지만 우도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것
도 게스트하우스만의 매력이다. 숙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계획
변경하기. 7코스는 올레길의 가장 백미여서 놓치기 아까웠지만 우선 우도를
둘러보고 다음에 제주도에 오면 꼭 가기로 다짐했다.

우도로 가는 배는 한 시간 마다 있지만 우도에서 다시 제주도로 오는 배는 일찍 끊긴다. 그래서 천천히 우도를 둘러보려면 하루정도는 우도에서 묵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도를 구경하는 방법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스쿠터나 ATV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걷는 것이다.

나는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우도는 그리 넓지 않아 걷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체력이 걱정된다면 자전거나 스쿠터도 좋겠지만 조심해서 타야지 자칫하면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도를 동행한 언니가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아 넘어졌는데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 했다.

나는 바닥이 비치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외국에 나가야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제주도에 가면 그런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고 행복해졌다. 우도도 마찬가지였다. 우도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 일주를 하다가 나타난 홍조단괴해변.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에서 내리게 만든 경치. 멀리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바닥은 너무나도 맑았다. 갈매기들도 햇볕에 몸을 맡긴 채 삼삼오오 둘러앉아 있었다. 바다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노라면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듯 했다. 내 마음은 가장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늑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도로를 따라 30분 정도를 더 달리면 길이 끝나고 지두청사의 옆모습이 나타난다. 매우 크고 예뻐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곳이다. 산에서만

"야호"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곳에 가면

"야호"

라는 함성이 저절로 나온다. 마음껏 바람을 느낀다. 자연의 위대함에 그저 감탄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로 옆 바다에는 한반도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 포토존(photo zone)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담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시 발길을 돌려 섬 외곽 쪽으로 달리면 아름다운 돌담이 펼쳐진다. 굽이 굽이 바람을 막기 위해 쌓은 아기자기한 돌담들을 보며 또다시 여기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고 행복해진다. 이 돌담길은 우도 올레코스에도 포함되는데 그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웠고 우도이기에 가능한 볼거리였다.

도로에 파란 화살표를 보며 그토록 오고 싶었던 올레길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고 파란 화살표(올레코스의 이정표)가 너무나도 반가웠다. 돌담 끝까지 걸어가 바다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다가오는 뱃시간이 야속할 뿐이었다.

우도를 나와 제주공항으로 오면서 제주도에도 점점 상술이 여기저기 비집고 파고들어가고 있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심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정이 더 많은 곳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맘을 무겁게 했던 한 가지는 공항으로 향하며 보인 공사현장들이었다. 무슨 공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사인 듯 보였다. 제주를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한 공사라도 웬지 아름다운 제주도를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설부를 걱정이 들었다. 개발해서 편리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조금 고생해서 다가가는 자연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줄 텐데, 제주도가 제주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와 우도를 너무 짧게 보고 온 탓일까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급하게 떠난 여행이라 일정이 짧아 많은걸 보진 못했지만 짧게나마 채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내 삶의 피난처를 하나 만든 것 같아 기뻐다. 그리고 혼자서 여행했다는 사실에 내가 대견스러워졌다. 앞으로도 자주 홀로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홀로 떠난 제주에서의 1박 2일. 그 속에서 스쳐간 많은 인연들, 스쳐간 바람, 스쳐간 경험들이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아 기쁘다. 나는 다시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또 다시 제주로 향할 미래를 그리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어본다.

어른이 돼서 다시 읽은

시튼의 '야생동물 이야기'

조희경



서가를 서성이던 중 표지가
밋밋한 책 한권을 뽑아들었다. 웬지 오래된 책인 듯싶었다. '회색곰 왕의
삶', 의외로 가벼운 느낌, 빛바랜 책, 마냥 누런 종이 재질, 느낌이 좋았다.
화려한 색상의 책들로 넘쳐나는 서가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나보다.

다시 표지를 보니 '시튼의 야생동물 이야기' 라고 작게 쓰여 있다. 어릴 적
읽었던 시튼동물기가 생각난다. 아동용을 어른용으로 다시 제작된 건가 생각
했다. 그러나 시튼동물기는 원래 어른용으로 써진 것이란다.

시튼의 동물이야기는 여러 권이었던 기억이 나 주변 서가도 훑어보니 '뒷
골목 고양이', '쫓기는 동물들의 생애'란 책도 같은 모양으로 꽂혀 있었다.
세권의 책을 뽑아들고 나왔다.

책의 형태에 끌려 뽑아든 책이라 책의 재질이 마음에 든다. 책이 너무 무겁

고 형형색색 칼라 그림에 동물 그림이 왕창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이 책을 읽지 않고 지나쳤을 것이다.

알고 보니 재생종이로 책을 만들었다. 출판사 리뷰에 따르면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재생지를 사용하고, 표지에는 코팅을 하지 않고 마치 성긴 삼베 같이 부들부들한 질감의 종이 느낌을 고스란히 되살려냈다고 한다. '부들부들한 질감의 종이 느낌', 이 말에 공감이 간다.

'회색곰 왓의 삶'은 샌드힐의 수사슴, 회색곰 왓의 삶, 은여우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주인공인 동물의 삶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며 읽어내려 가다보면, 아이였을 때 동화책으로 읽었던 그때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은빛여우 도미노는 멋지다. 인간과 사냥개들의 추적에도 똑똑한 도미노는 용기 있게 헤쳐나간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해피엔딩. 도미노가 가족과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며 책을 덮었다.

일곱 가지 이야기를 가진 '쫓기는 동물들의 생애'에서 주인공들의 삶은 좀 더 집약적이다. 사냥꾼들과 사냥개, 늑대 같은 적 앞에서도 당당했던 양 크래그, 사람보다 더 나은 참새부부 바디와 랜디, 고양이에게도 당하는 귀여운 곰조니, 열 마리 새끼를 지키는 쇠오리 어미. 아마도 열 마리 쇠오리 새끼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을 것 같다. 그리고 강아지 징크, 무서워하면서도 코요테에게서 텐트를 지키다니 대견하다.

달빛아래 춤추는 캥거루쥐들은 과연 얼마나 귀여울까? 아~ 마지막으로 코요테 어미 티토, 새끼를 구하는 모습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구 응원을 하면서 읽게 된다. 제복처럼 쫓기는 동물들의 삶이 참 힘들구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들에 삶에 동화되어 행복하길 바라게 된다.

'뿔꿀묵 고양이'도 '쫓기는 동물들의 생애'에서처럼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단지 조금 더 야생에서 멀어지고 우리 삶에 가까운 동물들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 편지를 전달하는 새 전서구 아누스, 정말 잘 뛰어서 슬픈 멧토끼 워호스, 사냥개가 될 수 없어도 더 용감하게 몰아대는 불테리어

스냅 등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많다.

난 특히나 커다란 회색 늑대가 가장 많이 생각한다. 시골보다 위험한 도시 주변에서 생활하고 개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보살피 준 소년 지미를 기억하며 아이들을 사랑한 늑대, 정말 몇 장 안되는 짧은 이야기였지만 마지막엔 코끝이 찡해진다.

아동용으로 나온 시튼동물기는 동물이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동물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려는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그렇지만 위의 책들에서는 좀 더 사실적이고 각색 없는 세세함이 있다. 행복한 결말은 거의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과 생생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의 시선이거나 관찰자가 되어 동물들의 생활과 그들의 마음 등을 짐작하게 한다.

1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책에 마음이 짙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지금도 동물들은 힘들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 가고 있을 테니까…….

어른들을 위해 이런 책이 있어 다행이다. 진짜 시튼의 동물이야기를 읽어보았다고 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다. 아마도 나처럼 아동용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시튼동물기를 읽었던 사람이라면 제대로 다시 한 번 읽어 볼만하다.

보너스로 안에 그려진 그림들도 참 예쁘다. 순수 그린 그림처럼 흑백이라, 이야기 속 장면을 직접 보면서 손으로 스케치한 느낌이다. 역시나 시튼 본인이 직접 그려 넣었다고 한다. 중간 중간 글이 있는 오른쪽이나 왼쪽 귀퉁이에 그려진 작은 그림들은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어디쯤 다시 그림이 나올까 발견하는 즐거움을 준다.

글도 그림도 놓치기 아깝다.

여행의 의미

김윤선

며칠 전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낯익은 냄새가 났다. 무슨 냄새였더라. 가만 생각해보니 몇 년 전 친한 언니들과 홍콩여행을 갔을 때 그 습하고 더운 공기 냄새였다. 당시에는 그렇게 싫었던 그 냄새가 이제는 그리운 추억의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육아와 집안일, 직장생활로 일상에 지쳤던 나는 아마도 여행이 그리웠나 보다. 아니 어쩌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던 나의 모습이 그리웠는지도 모른다.

자유여행을 택했던 우리는 목적지도 교통편도 우리가 직접 결정해 찾아갔다. 지도를 보기도 하고 경찰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길을 찾았다. 뱃터서 머리를 맞대고 지하철 승차권을 사서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 택시도 타고 때로는 걷기도 하면서 낯선 홍콩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어떤 식당에서는 인종차별을 경험한 불쾌한 일도 있었다. 그 레스토랑에는

서양인들만 있었다. 2층까지 있는 식당이었고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우리를 본 지배인이 뛰어 나와 자리가 없다고 하였다. 불쾌했지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오랜 지배로 백인 우월주의가 남아있다고는 들었지만 몸소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기분은 나빴지만 그것 또한 그 곳의 문화이고 아직 세계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험이었다.

쇼핑센터 같던 규모로 우리를 압도했던 홍콩중앙도서관도, 아파트에 빼곡히 널려있던 빨래들도, 쇼핑몰에서 보았던 반가운 우리나라 배우들의 사진도, 비릿한 맛으로 구토를 유발했던 홍콩의 대표 음식 딤섬도 기억에 남는다.

말도 통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시끄러운 노천카페에서 마셨던 시원한 맥주의 맛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림다.

지난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유로웠을 때 왜 조금 더 많이 여행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물론 여행 자금도 문제였지만, 추진력 부족한 나의 게으름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행자금은 두려움과 게으름을 덮어줄 좋은 구실일 뿐이었다. 다행히 여행 멤버중 앞장서 계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여행도 다녀온 것이지, 혼자였다면 아마 결국 가지 못했을 것이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문제였다. 나는 변화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성격이다. 내가 사서라서 그런지 그 이유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인 것 같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했다면 나의 모험심과 도전의식은 조금 더 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린이들의 책에는 다양한 모험담이 가득하니 말이다.

여행의 목적은 저마다 다르다. 나에게 있어 홍콩여행은 새로운 경험이 목적이었다.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고 여행이라고는 수학여행 뿐인 나에게 홍콩여행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었다. 경험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 많은 것을 경험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진다.

그에 반해 그 후 경주로의 여행은 힘들고 피곤한 일상에서의 탈출이 목적

이었다. 모든 것에서 지쳐있던 나는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얻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여행만큼 정신과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여행의 목적이야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르겠지만 여행을 가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면 다들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못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못 갈 이유를 만들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커다란 꿈을 하나 사 놓아야겠다.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 영국

어성욱 | 정보도서관 사서

둘째날 저녁, 피카디리 거리에서 모처럼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일행의 일부는 뮤지컬을 보러 간다하고 남은 사람들은 근처 술집에서 맥주를 한 잔씩 하겠다고 했다.

일정에 쫓겨 다니며 이번 여행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던 터라 가이드에게 숙소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 물어 본 후, 한손엔 카메라 다른 한손엔 런던 시내 관광지도 한장을 챙기고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나섰다.

원래 관광지보다는 사람 사는 모습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 여행에서 더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 온 것이었다. 혼자 다니는 여행을 주로 했기에 떠나기 전엔 항상 그 흥미를 가진 자료를 찾아보고 꼭 들러야 하는 곳을 체크했었다.

예를 들면 몇 명 일행과 함께 처음 싱가포르를 갔는데, 그때는 관광안내책자 뿐 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심지어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영풍문고가 있는 건물의 9층에 있는 싱가포르관광청을 찾아가 관광청 직원의 조언을 얻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일정이 정해진 단체여행이었고 무엇보다 출발 전까지 사전조사를 할 틈이 없었기에 관광지도를 손에 든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비록 가이드에게 숙소명과 교통편에 대해 물어보긴 했지만, 외국의 어느 거리를 혼자 다닐 때의 첫걸음을 때는 순간은 매 번 기대반 걱정반으로 시작된다.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이런 영향이었을까, 5월 초순 어느 날 런던의 날씨는 그야말로 관광하기 딱 좋은 최적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은 낯선 모양의 건물들이 눈에 띈다. TV와 영화로만 봐왔던 런던의 어느 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계사의 여러 장면들이 시간을 달리하여 일어났던 자리. 지금 내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400년쯤 전에는 셰익스피어도 서 있었을지도 모르고, 100년쯤 전에는 독일의 머릿속에서 홈즈가 루팡을 추격하기 위해 이 자리를 뛰어갔는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거리를 걸으며 나와 같이 런던을 걷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가져왔던 영국에 대한 이미지의 껍데기가 하나씩 들쭉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안개, 비, 스모크, 산업혁명…….

늘 우울하고 눅눅한 느낌이었던 영국이었는데, 때이른 따가운 햇살과 온 거리에 흩어져있는 세계의 관광객의 즐거운 웃음소리에 어느새 내마음속에서 런던은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새롭게 각인되고 있었다.

고대 건축양식을 따라한 듯 한 건물들이 거리에 줄을 지어 서있었다. 그 건물들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벽을 만져보았는데,

“응? 이건 *Prison*.”

단지 시멘트벽이었다. 페인트칠도 하지 않은… 아치형의 창들은 손질도 제대로 안한 듯 한 투박한 질감의 나무결을 지니고 있었다. 건축가가 보면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내겐 비슷해 보이는 건축물의 균열은 그 건축양식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었다.

조금씩 걷다보니 가까이에 높은 석탑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낮에 하이드파크에서 봤던 알버트공 조각상이 있는 탑보다 더 높아보였는데, 이번엔 누군지 모를 조각상이 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져 있었다. 그곳을 목표로 계속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이 나왔다.

광장의 양쪽에 물줄기를 하늘로 높이 뿜어내고 있는 분수 두 개가 있고 내 길을 안내해줬던 그 석탑의 하단에는 커다란 청동사자 네 마리가 사방을 향해 엮드려 있었다. 그리고 도로변 반대편에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 썸의 양식으로 보이는 커다란 대리석 건축물이 있었다.

얼추 광장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피부톤 등으로 봤을 때 여기가 분명 관광안내책자에 나오는 런던의 어느 한 명소일 것이다. 가져온 카메라에 사람들의 표정과 광장의 맘에 드는 장소 등을 하나씩 담으면서, 분수대 물 속으로 손을 넣어보고, 사자상이 있는 기단까지 올라가보고, 광장의 둘레와 이곳저곳을 쉴새 없이 걷다가 광장의 한편에 주저앉아 멍뚱이 사람들을 구경하고…….

한참 이러한 동안에도 계속 신경 쓰였던 광장 한편의 대리석건물.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카메라를 가방에 천천히 넣으면서 다시 한번 내 심장고동소리를 들으며 그 건물 입구로 향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 모양을 한 이 건물은 페디먼트 밑에 ‘NATIONAL GALLERY’라는 황금색 조형물 글자가 붙어 있었다.

입구 계단 근처에는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여러 피부색의 젊은이들

이 삼삼오오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옷차림을 봐선 나 같은 여행객은 아닌 듯 싶었다. 카메라도 없고, 여행하면서 들고 다닐 만한 가벼운 가방도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문 앞에는 모금함처럼 생긴 투명한 아크릴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ADMISSION FREE' 라는 문구가 써어 있었다. 입장은 무료였지만 이런 기부 행위도 어찌면 서양의 TIP문화의 일종인지도 모르겠다. 우선은 그냥 입장해 보고 잘 들어갔다 싶으면 그 상자안에 성의를 표하리라 생각했다.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서보니 그다지 무겁지 않은 공기가 퍼져 있었다. 각 전시실마다 걸려 있는 작품 중에는 이미 눈에 익은 그림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무언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노부부, 브로서 같은걸 손에 들고 감상하고 있는 젊은 남녀, 엄마 아빠의 손잡고 구경 나온 꼬마아이 그리고 그림 앞에 주저앉아 열심히 작품을 스케치하고 있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금발의 남자. 그림 앞에는 3미터 정도 떨어져서 가로로 기다란 나무의자가 하나씩 있었는데, 나도 그 의자에 앉아서 십분정도 열심히 그림을 감상해 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장소에선 웬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였고 감상이라기 보다는 바라보았다고 말하는게 옳을 것이다. 분명 많이 본 그림인데 그 작가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전시회라곤 다녀본 적이 없고 아는 그림이라곤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이 전부였기 때문에 작품의 감상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보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작품 앞에 앉아 있는 그 순간은 명상을 하듯이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짐을 느꼈다.

시계를 보니 시내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일행들이 호텔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웬지 이들은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강한 압박감을 잡자기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 발걸음은 어느새 출입문을 나서고 있었다.

광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아보고 그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후 이번

일정 중 한번은 다시 올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되돌아가는 길에는 석양에 반짝이는 황금색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유명하지만 정작 그곳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전무했던 영국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런던. 그날 오후 나는 한 시대를 호령했던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예술의 전당에서 렘브란트의 전시회가 있었다. 전시회 좀 다녔다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 설명을 들었다. 같은 '빛의 작가'라 불리는 '모네'와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모네가 직접 빛을 표현하였다면 렘브란트는 어둠을 이용하여 빛을 밝혔다는 것이다.

아마도 영국에서의 경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지 않았을까 싶는데, 여행은 알고 보고 느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함을 알게 해준다. 이것이 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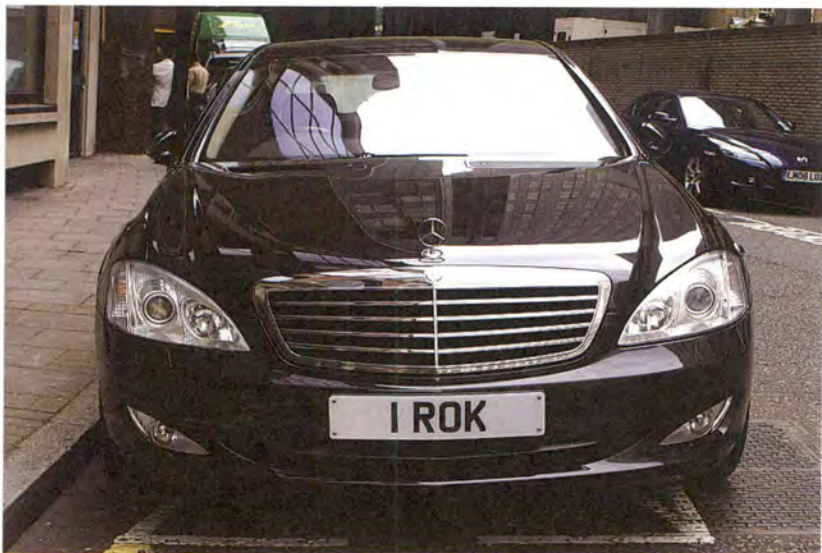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내셔널갤러리의 모습

이곳 기념품샵에서 본 해바라기가 프린팅된 티셔츠.
 이날 이후 이근처를 3번이나 지나쳐야했는데,
 일정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반나절 정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곳이다.



대리석도 아닌 그냥 시멘트 건물

그냥 시멘트벽에 나무창틀이 전부인데
왜 뭔가 달라보이죠!



영국 런던의 한국대사관에서 쓰는 독일의 벤츠자동차

예전에 뉴턴의 생가였다던 도서관을 찾아가던 중
발견한 자동차.

이 번호판을 보고 혹시나 했는데 자동차 왼쪽의 건물에
한국대사관이 있었다.



트라팔가 광장의 청동사자상

트라팔가해전을 승리로 이끈 넬슨 동상의
네 모서리에 있는 사자상이다.
프랑스-에스파냐 연합함대의
함포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한다.

아주 가벼운 것털 하나

장민영 | 정보도서관



‘아주 가벼운 것털 하나?’

처음에는 이게 무슨 책일까 궁금하여 휘리릭 훑어보았다. 그림도 재미있고 내용을 보아하니 일상에서 흔히 겪는 소소한 일들을 담아놓은 정말 가벼운 것털 같은 책이란 뜻이구나. 고개가 끄덕여졌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듯 여겨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을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작고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가벼움을 표방하지만, 사실 그런 가벼움 속에서 작가는 진정한 인생의 비밀과 진실을 알게 된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듯이,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듯이, 아주 사소한, 가벼운 것털 같은 일상이 모여 삶을 이루고,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 그토록 집착했던 거대한 것들이 실은 언제나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 체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거대한 것들이 아닌 풀잎, 반찬, 라디오 프로그램, 세금 같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다고 한다.

살아 있는 것들은 대개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준 패랭이꽃, 최고급 일식집에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길거리 표 오탡의 맛, 순교보다 더 위대한 미소를 지으며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뽁뽁 숨겨놓은 꽃봉오리가 만개하는 매화차의 감동, 수녀님이 건넨 안경 덕에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된 사형수의 이야기 등 작가 공지영이 건네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하나하나 씹 깨닫는 재미를 알게 된다.

마흔여덟이라는 나이에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동안 타령'과 함께 나이를 속이는 소머 친구들, 인생에 상처가 없으면 뭘 재미로 사냐며, 다시 사랑을 하라고 조언하는 화가, 강원도만 가면 돈만 알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허영생이가 되고 마는 작가, 비만 오면 생각나는 친구 '뽕개탄'의 술버릇, 외딴집에서 파리와 풀벌레 소리에 밤새 불안해했던 신부님 등 작가에게 힘을 준 친구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진다.

친구들에겐 자신이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친구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는 첫 번째 파트를 읽으면서 나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 세상을 사는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닐까 싶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 그런 것들을 호되게 겪고 나면 마음의 나이가 한참 자라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의 고통과 이픔을 잘 견뎌내면 말이다. 그리고 마음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쉽지만 어려운 진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작가도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시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작가 개인이 겪은 일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그녀 역시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개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고통과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진부하고 심심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듣게 된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과 함께 힘이 난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계속 내 머릿속이 가벼워지는 듯 했고 삶은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심히 흘러보내는 우리의 인생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잠깐 여유를 가지고 그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즐거울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고 담담히 인생의 매 순간을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피식 웃으며 편안히 한장 한장 읽는 가운데서도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경청’이란 무엇일까?

김승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경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듣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 라고 반문을 하게 된다. 사실 나도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책까지 읽어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 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나를 돌이켜 볼 때 ‘나와 의견이나 경험이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꺼렸던 적은 없었을까? 내가 그랬다면, 나와는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은 내 안의

확고한 고집이 상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경청'이라는 단어가 왠지 나에게 필요한 지침 같이 느껴졌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미리 내 생각으로 짐작하고 판단한다. 우리의 편견이나 아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잘 들으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것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견이나 고집을 잠시 접어 두라는 것이다. 우리의 의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태도가 중요함을 이 책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 이토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기 보다는 나를 드러내 보이는게 목적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과장은 아내와의 대화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주로

“알았어, 알았다니까…….”

라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다가 결국 아내와 별거 상태까지 가게 된다.

나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와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

“이건 이런저런 이유로 안돼요. 다른 분들도 안 해드렸는데 이용자님만 해드릴 순 없어요.”

하면서 더 이상 이용자가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대화를 끝낸 적이 많았던 것 같다.

도서관에 발령을 받고 나서 처음 얼마간은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참고 정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단순한 구두 서비스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 자료를 찾아주기 위해 이용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주는 도서관 서비스를 해야지.' 하고 내 스스로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했던 나와 의 약속은 점점 잊어버리고 이용자의 요구를 '상 차려줬더니 밥까지 떠먹여 달라는 건가' 하는 식의 귀찮은 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왜 좀 더 이용자의 입장에서 나의 판단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용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는지는 깨닫지 못했다.

이 책은 주인공 이토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과정을 통해 '경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면, 현악기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홍보팀 이 과장은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국내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된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위원회가 소집되고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회사의 후광을 받고 있는 안부장의 눈에 들어 자진 퇴사를 결정하는 대신 목 좋은 대리점 개설권을 얻어낸다.

이과장의 별명은 이토벤이다. 이토벤의 별명은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베토벤처럼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이 붙여준 것이다.

대리점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이토벤은 '이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 될 거야' 라는 기대에 피곤한 줄도 몰랐다. 그러나 대리점이 오픈하기로 한 날, 이과장은 뇌종양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는다.

직장생활 10년 동안 오직 일에만 매달린 이과장은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그 동안 가족을 돌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고, 발달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 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될지도 모르는 특별한 선물인 바이올린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한다.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위해 평소 사이가 소원했던 강원도 옛 직장동료에게 바이올린 제조법을 개인지도 받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회사 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악기 생산 3팀에 들어가게 된다.

3팀은 회사 내부적으로 가장 개성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장인들을 모아 놓

은 수제 현악기 제작팀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많아 대화가 단절된 조직이다.

그는 현악기 제작팀에서 청력장애로 인한 멸시를 받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귀가 들리지 않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더 경청해 듣게 된다. 상대의 말을 도중에 자르지 않고 상대가 말한 것은 다시 되짚어 질문을 하는 이토벤의 태도는 팀원들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린다.

그가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던 집중하는 경청의 자세가 팀원들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토벤은 훗날 아들과의 소통을 바라며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글은 끝을 맺는다.

3팀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 '경청'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되었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청운동, 경청을 실천하기 위한 다섯 가지 행동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공감을 준비하자. 상대에게 공감을 하려면 내 안의 판단을 버리고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 안의 판단이 상대를 터치하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상대를 인정하자. 일단 마음을 비웠다면 우리는 더욱 상대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여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말하기를 절제하자. 내가 상대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가능하다. 나의 말을 절제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도 나에게 집중해 줄 것이다.

넷째, 겸손하게 이해하자. 이 가이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 같다. 겸손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조금씩 다가가려

는 노력을 한다면 상대도 자기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몸으로 응답하자.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온몸으로 내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손으로든, 입으로든, 혹은 눈으로든 표현해야 한다.

이토벤이 마지막으로 아들 현이에게 남긴 말이 '이청득심(以聽得心)'이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책속에서 말해주듯,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작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나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 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으려면 먼저 상대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근무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쉬워 보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내가 민원인을 대할 때,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관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해아려주길 바랐던 것 같다.

이전의 나는 이용자와 문제가 생기면 나의 입장만을 이야기했다. '내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과 민원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나는 이용자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이해하고 온몸으로 응답하면서 그 입장을 공감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성실하게 들어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중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이 책의 주인공 이토벤처럼 오늘은 나도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본다.

"판단하려는 나를 비워내고 내면의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위한 경청을 찬찬히 시도해 보는 것도 상대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의 적, 과학의 순교자 갈릴레오

마이클 화이튼, 김명남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9.

모인 곳 | 2009. 10. 13 의정부과학도서관 세미나실 II



어둠이 살짝 내려앉은 10월 둘째 주. 갈릴레오가 살던 중세시대가 그랬을까. 낮은 산자락에 밝은 빛과 책들이 쌓인 모습만 환하게 빛나는 것이 갈릴레오의 지난 영광을 떠오르게 한다.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 하나. 바로 중세시대 사람들이 인간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무거운 철갑 옷을 입고 검을 휘두르며 장난감처럼 움직이고 싸우는 인간이 아닌 바로 어제까지도 밤새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던 사람처럼 묵직하게 느껴졌다. 단지 교과서에서 몇 줄로만 소개되던 갈릴레오를 이렇게 만날 수 있던 것은 뒤늦은 행운일까?

갈릴레오는 인간적이었다. 못난 동생에 가난한 집안의 가장 그리고 자신의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 누구라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자신의 운명을 지혜롭게 풀어나갔다. 게다가 학문적 업적까지 이런 갈릴레오는 겉으로만 봐도 성공한 지식인이자 과학자다.

브루노의 화형을 보며 갈릴레오는 무엇을 느꼈을까? 김훈이 말한 남한산성에서 가졌을 극단적인 인간적 고뇌였을까? 아님 섣덕여왕이 된 덕만처럼 위기와 기회를 번갈아 헤쳐 나갈 용기를 품었을까? 학문적 자존심, 학문적 정직함, 학문적 성실함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킨 갈릴레오는 분명 근대과학의 큰 빛장을 연 과학의 큰 스승임은 분명하다.

갈릴레오가 첫 데뷔한 공식 강연은 지옥의 크기에 대한 학문적 견해였다. 단테의 신곡이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한 지옥에 대해 자연철학자인 갈릴레오가 강연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지금은 학문간 융합 그리고 통섭이 다양한 학문 영역을 연결시켜 보다 총체적인 이해와 연구를 돕는다. 갈릴레오의 지옥의 크기 강연은 이런 융합의 영역이 아니다. 근대 과학의 시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공감을 떠나 인류의 한 발자국 진보에 가슴이 뭉클해져야만 했다.

해마다 열리는 과학축전, 과학한마당 그리고 다양한 과학행사들 속에 과학의 대중화란 슬로건이 걸린다. 최재천 교수가 말한 대중의 과학화가 우선일 듯 싶다. 과학이 통속 소설이나 흥미로운 헐리웃 액션의 속성을 지니긴 힘들다.

갈릴레오의 치열한 과학 지키기에 비취 우리의 과학 알리기는 목숨을 담보로 한 수많은 중세 과학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여기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바로 당신들 때문에.

이제 한국의 과학사에도 관심이 커진다. 한국 근대과학사에서 선사시대의 과학까지 우리 과학의 자긍심도 찾아야 될 것 같다. EBS 학습자료실에 다양

한 과학 영상이 있다. 기존의 이론 중심 수업에 영상 매체의 활용은 중요하다. 기법의 변화가 아닌 과학 수업의 인식 그리고 과학사와 과학철학의 반영은 수업의 질과 연결된다. 풍요로운 과학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맺어갈 과학의 결실은 풍요로울 것이다. 갈릴레이가 설파한 원자론과 종교재판 사이에 갈등은 아직도 여운을 남기고 많은 추측과 생각을 던져준다. 교회의 적이 되었던 갈릴레오가 생각한 진짜 과학의 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도 제도도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를 봉쇄하는 무서운 이성의 아집이 아닐까? 인간의 이성이 항상 이성적이지만은 않았다.

종의 기원

찰스 다윈, 홍성표 옮김, 홍신문화사, 2009.

모인 곳 | 2009. 11. 5 의정부과학도서관 세미나실 II



이제 2009년도 짙은 해거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정래 선생님의 서재에서 종의 기원에 대한 독서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진영(회룡중) 선생님께서 참석하셨고요, 김정래, 김현희, 김태호 선생님까지 여섯분이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아쉽게 못 오신 성은미, 황선영, 류승용 선생님의 안부가 있었습니다.

종의 기원은 워낙 유명한 고전이라 다들 이름만 풍성하게 들었지 실제로 꼼꼼하게 읽어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손에 잡았지만 방대하고 꼼꼼한 기록을 보며 다윈의 이 저서가 왜 이렇게 인류 문명사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변종과 종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변이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고찰은 과학자의 전형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또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끊임없이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내비치는 노력은 <종의 기원>이란 네 글자를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번역자가 인문학자여서 다소 거칠거나 이해가 어려운 번역이 있었지만 당대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자연철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자들이 있었음을 고려해 읽을 만 했습니다. 자연선택이란 개념에 앞서 허버트 스펜서의 '최적자 생존' 개념을 밝히고 더 적당한 표현임을 말하는 다윈은 신중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종이 불변한다는 시대적 가치와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끈 다윈 입장에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물론 윌리스의 편지는 다윈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출판이라는 용기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윈의 진화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과 진화생물학 내에서 도약진화와 점진적 진화에 대한 논쟁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문, 사회학 영역에서 진화론을 적용시켜 발생한 사회우생학, 경쟁사회에서 열등한 인종, 사람에 대한 물이해를 촉발시킨 점도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물론 다윈의 진화론이 아직도 수많은 오해를 낳고 있지만, 자연이 어떤 방식이든 환경에 적합한 종을 선택한다는 의인화된 표현은 가장 안정되고 최선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좋은교사운동에서 기독교적 교육과정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 불쾌하지만 과학의 범위와 종교의 범위가 부딪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종의 기원이 가져다준 인간의식의 갈등은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인간배아를 연구하려는 생명공학의 기염을 보며 물질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의 이성엔 신의 나라와 어떻게 만날까요? 함께 식사하며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 자연과학에서 사라져 버린 철학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두이’

이인해



도서관에서의 일은 제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지만 자료실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때론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저의 이런 생각을 돌이켜 보고 사서로서의 일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두이의 이야기를 읽고 난 후였습니다.

수년간 고양이를 직접 기른 적이 있는 저는 고양이가 일반인의 편견보다 얼마나 영리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평생을 산 고양이의 얘기에 금방 빠져들어 제가 마치 주인이 된 듯 읽었습니다.

추위가 혹독한 아이오와주 스펜서 마을의 한 겨울날 차디찬 반납함에서 발

전된 고양이. 운명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겨울밤을 그렇게 버텨낸 새끼고양이가 도서관에서 Dewey Read More books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고 그곳의 마스코트가 되다니!

책에는 도서관과 고양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스펜서 마을의 이야기, 주민들의 애환, 저자인 비키 마이런의 인생역정과 가족사,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하나의 휴먼 드라마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하여 의회를 설득하고 반대하는 이용자들을 설득하는 과정(까칠한 이용자들은 어디나 똑같군요...),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삶에 지친 주민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는 일들이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책에도 듀이의 사진이 여러 장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듀이의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듀이가 특별하게 아름다거나 또는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듀이는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무릎에 누워 이야기를 들어주다 잠이 들고, 북트럭을 타고 다니며 일하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에 알콜중독자였던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일하면서 암과 싸우고 딸을 키우고 그 딸이 사춘기가 되어 힘겨운 갈등을 겪는 과정 중에 있던 도서관장 비키에게 사랑을 주고 힘을 주었지요.

고양이를 키워 보았으면서도 놀라웠던 점은 매일 아침 가장 일찍 출근하는 비키에게 앞발을 흔들어 사람처럼 인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듀이가 차디찬 금속 반납함에 버려졌던 고양이인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커다란 일이 아니라 이토록 작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

니다. 저자 비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아라.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라. 인생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어디에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카메라를 향해 눈을 커다랗게 뜨고 호기심으로 다가오던 듀이의 눈빛이 생 각나는 겨울입니다.

환자 증독자 1인의 회상

이혜정 | 의정부시 녹양동

어릴적 책과 별 상관없이

자랐다. 동네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딱지치기, 야구, 고무 따먹기에 열을 올렸고 글자를 알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다 초등학교 3~4학년 즈음이었을 게다.

가게에 온 외판원의 부추김으로 집에 들어온 50권짜리 세계문학전집은 신세계였다. 끼워쥔 책꽂이 생김새와 빨간색 책표지까지 기억나는 내 생애의 첫 책은 아직도 아스라하게 남아있다.

소공자, 흑기사, 모히칸족의 최후, 피터팬, 철가면, 허클베리핀의 모험, 걸리버 여행기, 80일 간의 세계일주 등등. 50권이었지만 많게는 10번, 적게는 두세 번 정도 읽고 또 읽었다.

거듭 읽어도 매번 처음인 양 주인공에 동화되어 가슴 줄이고 설레었던 그

세계문학전집을 만나며 비로소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50권짜리 전집이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책을 사주지 않던 부모님을 원망하며 학급문고나 학교 도서관 서가를 기웃거리게 됐다.

중학교 때 책과 관련된 기억은 수업시간 중에 몰래 서랍에 피놓고 읽던 일들, 교과서 위주로 학교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던 각종 시험 수석 합격자들의 충고와는 정반대로 수업시간 도중 도시락도 먹고 수업과 아무 상관없는 책들을 선생님 눈 피해 열심히 읽고 다음 시간 숙제도 부지런히 했다.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나는 건 김홍신 <인간시장> 정도다, 정의롭지 않은 가진 자들을 골탕 먹이는 장충찬 캐릭터를 통해 카타르시스 느꼈고 윤다혜와의 달짝지근한 로맨스도 재미있었다.

고등학교 도서관은 폐가제라 신청서를 내민 뒤 도서관원이 책 가져오길 기다리며 데스크 앞에 서서 뻔뻔히 보던 금단의 구역, 서가는 신비로웠다.

조정래 <태백산맥>,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헤르만 헤세 <지와 사랑> <유리알 유희> 등 학교나 미디어가 보여주던 그 좁다랗고 알팍한 세상 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일종의 충격과 또 그만큼의 기쁨 느끼며 일주일에 한두 권 씩 주린 배를 채우듯 열심히 읽었다. 지나고 돌이켜보면 길지 않은 삶에서 가장 순수하게 삶에 대한 열의를 반짝이며 읽던 시기였다.

나에게도 대학에 대한 한 줌 환상이 있었다. 80-90년대 운동권 후일담 소설 속 정치적 상황이 주는 핏진함과 대조적으로 공동의 목표 아래 선후배, 동료들과 지적 자극을 주고받는 자들이 부러웠고, 지금에야 털어놓자면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부채의식까지 살짝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 문턱을 넘고 보니 저 유명한 96년 연세대 항쟁을 단말마로 너와 내가 어깨를 겹고 외치는 우리의 개념은 빠르게 사라졌다. 뒤이은 IMF의 파고를 넘어 신 자유주의의 싹이 자랐다.

2달이 넘는 기나긴 방학동안 산등성에 자리 잡은 시립도서관에 출근부 찍으며 버트런드 러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스콧 니어링을 만났다. 소박하지

만 조화로운 삶, 자발적 가난, 지속가능한 미래 등에 호기심이 생겨 휴학을 하고 외국에 봉사 겸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대안교육 교사양성기관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동체를 기치로 앞세우는 울타리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나의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그 곳을 나온 뒤 취미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곳에 일터를 잡은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삶의 길 위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삶의 전환점 그 모퉁이, 모퉁이에서 내가 읽었던 국내외 다양한 인생 선배들의 글들이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다는 점이다.

아집의 벽을 높이 쌓아올린 꼭 막힌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책을 들춰보려 한다.

하성란의 『삿갓로 여인숙』을 읽고

임애리



하성란의 원래 이 책은 인터넷 (하이텔)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재편집해 소설책으로 낸 것이라 한다. 그의 소설 작법 또한 새롭고 신선하며 제목 또한 그러하다. 별로 심각한 내용도 없고 단문이며 내용도 짧다.

이런 점은 30~40대의 실천 문학 작품을 접한 세대에게는 가벼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성란은 새로운 세대의 소설 선구자로 발돋움 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은 신비하고, 추리소설 구조와 비슷해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줄거리 또한 그리 길지 않은 내용이다. 비록 19세부터 29세 까지의 주인공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말이다. 고 3이 된 '진명'은 쌍둥이 남동생 선명이 교

통사고로 즉사한다. 시체를 처리하던 중 선명의 왼쪽 귀가 없어진 사실을 알지만 찾지 못하고 화장을 한다.

그 뒤부터 진명의 왼쪽 귀엔 '나는 코스케입니다.'라는 일본어가 들리기 시작한다. 마치 잃어버린 선명의 왼쪽 귀가 진명의 귀가 돼버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고스케** 라는 일본 남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동생의 물건을 정리하던 진명은 수학여행 때 선명이 산 예뻐종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머지 두 개의 행방을 알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곧 알게 되는데 윤미래라는 여자에게 선명이 준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행방은 진명에게 호기심을 남기고 다른 하나의 행방은 마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그 종을 찾는 과정은 진명이 거치는 사람들에게 의해 하나씩 밝혀진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좋아했지만 아내가 있는 일본 남자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김유미, 선명을 잊지 못하고 해마다 실종되는 윤미래, 카페에서 연주를 하던 사내, 삿포르에서 태어나 그곳의 기억을 갖고 있는 김정인과 그의 애인 김태경, 그리고 진명의 첫 직장 선배인 미스 최 등…….

이 모든 만남이 진명이 삿포르 여인숙으로 가는 길로 안내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미스터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재미있다.

결국 진명은 코스케가 여행하고 있는 장면을 환영으로 보고 그 때 본 시계탑을 근거로 일본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윤미래를 만나 삿포르 여인숙으로 간 진명은 드디어 코스케를 만나고, 그 곳에서 자신의 사진과 선명의 편지를 발견한다.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지만, 그것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이 소설은 줄거리 중심이 아닌 문장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분위기 중심의 소설인 것이다. 특히 마지막 내용인 진명이 선명의 편지를 발견할 때 아마도 운명의 조작을 느끼게 한다. 편지에 있는 선명이 하려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진명이 선명의 죽음에 대한 극복기이자 개인의 성장소설로 볼 수도 있는데, 하성란 특유의 문체가 추리소설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주변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줄거리에 숨겨진 뜻을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미를 이 소설은 준다.

사서 인턴 후기

박혜선

5월 달, 인턴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8개월 이란 시간이 지났다. 어린이도서관에 처음 와서 일을 시작 할 때에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다.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를 첫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지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다.

2년 동안 문헌정보학을 공부했지만 실무경험이 많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워낙에 덜렁대는 성격으로 도서관에 피해를 주진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하기 일췌였다.

8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안내데스크, 데스크, 서고업무로 하나씩 배워나갔다. 나에게 전문적인 일이 주어지기 전에는 서가정리를 하였고 전문적인 업무가 주어지면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었다.

안내데스크 업무는 민원업무가 주를 이뤘다, 처음 일을 시작해서 민원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질문을 해오면 이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럴 때 마다 선생님께서 홈페이지를 자주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민원처리도 한결 수월해 지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데스크업무를 보면서 내가 우려하던 걱정이 사실이 되었다. 물론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면서 주말에 한 번씩은 데스크 업무를 했다. 나름 배웠다 고 생각 했는데 막상 업무가 주어지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나는 날마다 실수를 했고 항상 뒷수습은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나의 실수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묵묵히 나를 도와주셨다. 그때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나중에 다른 곳에 취직을 하여 상사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런 해 선생님이 떠오를 것 같다.

인턴으로써 아직 도서관 일에 대해 깊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어려운 업무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데스크 업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용자와 접하면서 복잡한 민원업무도 많고, 도서관 시스템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내게 가장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Story telling이라는 분야였다. Story telling은 일주일에 한번 씩 선생님이 오셔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동화를 읽어주고 함께 노래도 부르는 수업이다. 내가 하는 일은 담당선생님 옆에서 해석을 해주는 일이었다. 단어는 어렵지 않았는데 해석에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 Bear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곰인데 아이들에게는 아기 곰이라고 의역을 해야 했고, 목소리도 평소와는 다르게 다정다감하게 해야 되서 많이 쑥스러웠지만 오히려 격려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한결 부담을 덜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신종플루 확산으로 수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나에게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면만 배웠다면 도서관에서는 실질적인 것들을 배우며 부족한 지식을 채울 수 있었기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도서관은 분야별로 업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설립목적에 맞게 어린이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또 이용자수도 생각보다 많았다. 사실 아직까지는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알아가면서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실무를 경험하기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생각에는 긍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도서관에서의 인턴생활은 나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내게 인턴 사서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과 좋은 친구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었다. 또한 8개월 동안 일을 한 결과 나의 직업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었기에 부족한 능력이나마 쓰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언제나 열심히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만의 독서노트를 채우자

책제목 :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습관

미영미

요즘은 매일 수천 권의 책 속에 둘러 쌓여 하루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책 제목과 표지를 보면서 어떤 책일까 궁금해지고, 들쳐보고 싶고, 읽고 싶어지는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 뭔가 전략적으로 읽고 짧은 시간 안에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책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습관' 이란 책을 펼치게 했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책을 많이 팔아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업가, 교육전문가 등이 자신들의 독서법을 공개한 책이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메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므

로 독서와 함께 세세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책을 읽고 자세히 메모를 하고 주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시치다 마코트)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관심있는 분야를 알 수 있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인생은 속이 깊으며 얕히고 설킨 인연과 복잡하기 그지없는 사건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나 단순하게 잘라 버리면 중대한 사실을 못보고 지나칠 위험이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인생을 깊게 볼 지침이 필요하다.' (시치다 마코트) 그래서 곁에 두고 인생의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의 독서노트에도 인생의 경계로 삼을 책을 빼곡히 채워간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또한 독서노트는 내 인생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찾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싶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 꿈을 찾아 가는 길을 독서노트와 함께 하고 싶다.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생생한 이미지로 떠올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꿈을 실현할 지름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이 책에는 자신의 꿈을 생생한 이미지로 떠올려서 실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만의 독서노트에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첫 번째 '보물지도'를 적어보고, 두 번째는 모델을 설정하자.

'보물지도'란 말 그대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 목표라 할 수 있다. '보물지도'를 이렇게 작성해 보자

- 1단계 : 큰 모조지나 코르크 보드 준비(000의 보물지도)
- 2단계 : 중앙에 활짝 웃는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붙인다.
- 3단계 : 목표를 나타내는 사진, 일러스트를 붙인다.
- 4단계 : 목표의 구체적인 달성기간이나 방법을 적는다.

5단계 :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자주 바라본다.

개인의 꿈에 대한 보물지도도 좋고 가족이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작성해 봐도 좋을 듯 싶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는 모델을 설정하는 일이다

빌 게이츠는 평소에 전기를 좋아했고, 과학자와 정치가의 전기를 많이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컴퓨터 업계를 평정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독서노트는 무엇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나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또 독서노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주고 힘을 줄 것이다.

오늘도 나만의 독서노트를 채워본다.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연금술사’를 읽고

진선미 | 과학도서관

“어떤 일 하세요?”

하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도서관 사서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순간

“책 많이 읽으시겠어요.”

라고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곤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늘 자신이 없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편이기 때문이다.

책은 읽지 않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서점에 들르는 걸 좋아한다. 깨끗하게 정렬되어 있는 책들, 주제별 베스트셀러, 추천도서 코너,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볼 때면 그 많은 책을 다 읽은 듯 흡족하다.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맘만 먹으면 매일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여건이지만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아직 손때가 묻지 않은 새 책을 볼 때면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든다. 구입하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내 책장에 머물 친구니까.

평소 집에서 인터넷과 음악을 들으며 죽이는 시간을 책 읽는데 투자하라고 질리도록 동생이 항상 말한다. 그런 와중에 동생에게 적극 추천받은 책이 연금술사였다. 서점에 들른 김에 오랫동안 봐야겠다고 맘먹은 연금술사를 집어 들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파울로 코엘류 소설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를 재미있게 읽어서인지 기대감이 컸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러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으로 설레임으로 첫 장을 넘겨나갔다.

스페인의 들판, 밤하늘의 별, 양떼,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 꿈의 계시를 따라 '자신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 양치기가 된 청년 산티아고는 한 아이가 자신을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꿈을 연속해서 꾀다. 산티아고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 여행길에 오른다.

그 여정에서 산티아고는 집시 여인과 늙은 왕을 만나고, 도둑을 만나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에서 죽음의 문앞에 이르기도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도 끌리지만, 꿈을 계속 쫓아가라는 연금술사의 충고를 따라 마침내 '자신의 보물'을 찾게 된다. 산티아고의 보물을 찾기 위한 이집트까지의 여정 속에 회노에락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 단편이 꿈을 향해 돌진하며 부딪히고 깨닫는 산티아고 속에서 보였다. 그래서 더욱 공감이 깊고 지금 뚜렷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가는 나의 일상처럼 생각도 되었지만 곳곳의 표지를 통해 내가 보물과 연결됨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고 희망을 주었다.

비금속으로 금을 빚어내는 연금술의 과정처럼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기까지 험난하고 극적인 여정을 겪으면서도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하여 끝내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꿈과 대면하게 된다.

산티아고가 현실에 안주했다면 양치기로 아니면 크리스탈 상점 점원으로 살면서 보물찾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때때로 산티아고처럼 목표를 이루기까지 건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들에는 모두 삶이 부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

본문에 '결심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다. 결심을 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데 '자아의 신화' 즉 목표를 이룩하는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의심할 수 있으며, 포기해선 안되고, '초심자의 행운'을 누리되 방심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초심자의 행운'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자아의 신화'의 표지를 식별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삶은 '초심자의 행운'을 부여하나, 다시 '가혹한 시험'을 행한다. 과연 이 자가 '자아의 신화'를 이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용기와 강인한 의지와 인내를 발휘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고통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포기'와 '외면'을 통해 자신의 생의 의미 찾기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울림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전언이고 영혼의 목소리이다. 그러한 자를 삶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한 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생각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맹목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맡겨 두고 유명하는 인간은 한갓 무의미한 존재일 것이다.

생각의 고통을, 생각과 의지와 세계의 갈등을 감당하고 이겨낸다면 비로소 우주의 한 생명으로서 있는 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존재감을 온 가슴으로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작은 성 마을의 성직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옛 스페인 금화 세냥으로 양치기가 된 어느 한 남자의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영혼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일상에 함몰하여 때때로 마음의 소리를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항상 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마음속에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한다. 하지만 실천의 문제인 듯 하다. 알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게 가장 무섭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 변하지 않고 시간에 맹목적으로 정신과 육체를 맡겨둔다면 10년 아니 20년 뒤의 내 모습은 끔찍할 정도로 한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란다면 온 우주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나에게 제일 다가왔던 구절이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음만 있다면 말이다.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용기도 솟구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연금술의 존재의 이유인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이다.

오늘부터 어제의 나 보다는 발전된 내가 되기 위해 결심하고 목표를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야겠다.

아주 작은 '자아의 신화' 라도 말이다

목표가 희미해질 때면 이따금 책장에서 다시 꺼내어 볼 것이다.

사서 후기

미나영

무엇이든 첫 시작은 설렌 마음과 함께 걱정과 고민에 휩싸인다. 사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나 또한 그랬다. 나 자신이 원래 고민도 많고 겁도 많은 성격이라 뭐든 첫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다른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에 오게 된 것에 한시름 걱정은 덜었다.

첫 날, 나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고, 낯선 사람들을 보니 더 긴장하게 되었다. 조금은 내가 아는 익숙한 환경과 도서관 성격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눈에 익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제 서야 학

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앞에서 말했던 짧은 나의 사회경험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무엇일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자 분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우물쭈물해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 실수가 생길 때는 소심해지는 나를 느끼며 ‘처음이니까 괜찮아.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자.’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부터 큰 실수까지, 수가 줄긴 했지만 한번 씩 이어지고 반복되는 실수에 나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스럽게도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태도도 소극적으로 바뀌고, 눈치가 보이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서는 이용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하는 직업인데 나는 오히려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또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컸다. 이러한 생각이 이어지던 때, 선생님을 옆에서 볼 때면 놀라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은 두개, 세 네개, 아니 다섯개 앞까지 보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이 짧구나’라는 생각과 반성도 많이 하게 되었다. 일을 할 때의 지혜나 요령도 옆에서 많이 훑쳐보고 배우면서 터득하려고도 노력했다.

지금도 난 사회 초년생이지만 7~8개월 전의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많이 어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그 때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나 스스로는 많은 것을 배웠다.

먼저 유하게 사는 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유해졌다

는 것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실수 하나에도 머리 싸매고 자책하고 바보같이 굴었던 나를 보면 조금은 덜 피곤하게 사는 법을 배워 둔 것 같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뻘뻘어지게만 보이기도 하는데, 세상 전체를 바르게 보고 유하게 넘길 수 있는 법을 배워두게 되어 나 스스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도 사실 지금도 실수가 하나하나 발견될 때면 내가 한 실수는 아닐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닥친 이용자들은 큰소리를 치시기도 하고 자신의 기분이 언짢음을 알려주신다. 나는 우선 일을 떠나 큰소리를 내거나, 언짢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소심해지고 당황하게 된다.

지금도 그런 분들을 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일이고 그 분들이 화가 나신 이유는 이 일로 인한 문제 때문 아닌가. 그리고 나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어쩔 줄 모르고 사과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해결과 대처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턴을 하며 좋은 경험도 많이 하게 되었다. 래프팅도 해보고, 내가 가보고 싶은 축제에도 가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모든게 처음이라 서툴고 제대로 즐기진 못했지만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경험 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만났다. 같이 인턴을 시작한 친구가 나와 동갑이란 소리에 기대를 많이 했었다. 나와 그 친구는 다른 점이 더 많지만 서로가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서 인턴기간이 외롭지 않고 즐겁게 지냈다.

그리고 잠깐 동안 공공근로로 일했던 친구가 있다. 나보다 한두 살 어리긴 하지만 생각도 더 많이 트이고 아는 것도 많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눌 때면

‘내가 간혀만 지낸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 친하게 지낼수록 나조차 생각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 즐거웠다.

그리고 공공·희망근로 아주머니들은 딸처럼 대해주셨다. 먹을 것도 잘 챙겨주시고 날이 추워지면서 부터는 버스정류장 근처까지 데려다 주셔서 따뜻하고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었다. 내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친절히 알려주시기도 했다. 선생님들도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윗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나도 사회에 당당히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서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서비스 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나는 삶의 지혜와 지식이 많이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서 인턴 경험은 눈이 트인 기분이다. 아무 생각없이 사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할 시작하거나 무작정 뛰어들려고 했다면 더 큰 좌절을 맛보지는 않았을까? 작은 발걸음이나마 시작하게 되었다면 누구에게든 그것은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이제 사회의 중요한 경험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되었으니 사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키우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몇 년 후엔, 이용자가 만족하는 충분한 지식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서가 되고 싶다.

아직은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지만 꿈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한글 어나는 국 어학
언젠가 기억에서



의정부정보도서관



EM127876

책!

변화의 시작입니다.

